
2021년 사회책임투자(SRI) 채권 시장 현황

2022. 4.



요약

I. SRI 채권 시장 경과

□ 제도 마련

- 2019.12.31.,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제정
- 2020.6.15.,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 개설
- 2020.12.30.,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녹색채권가이드라인」 공동 제정
- 2021.12.20., 한국거래소 ESG 포털 개설
- 2021.12.31.,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제정

□ SRI 채권의 구성

- 녹색채권(Green Bond) :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 투자 목적 채권
- 사회적채권(Social Bond) : 사회가치 창출 사업 투자 목적 채권
-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 환경친화적이고 사회가치 창출 사업 투자 목적 채권

II. 시장 현황

1. 발행 규모, 채권 수, 및 발행자 현황

1) 발행 규모

□ 2021년까지 누적 발행규모는 약 172조원으로 조사

- 사회적채권 약 139조원, 지속가능채권 약 18조원, 녹색채권 15.5조원

□ 2021년 SRI 채권 발행규모는 약 86.8조원, 사회적채권 61.8조원, 녹색채권 12.5조원, 지속가능채권은 12.4조원 발행

<SRI 채권 발행 규모>

구분(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녹색채권	600,000	1,470,000	960,000	12,459,000	15,489,000
사회적채권	300,000	25,745,915	50,871,600	61,842,954	138,760,469
지속가능채권	350,000	1,750,000	3,690,000	12,449,000	18,239,000
SRI 채권 전체	1,250,000	28,965,915	55,521,600	86,750,954	172,488,469

2) 발행 건수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29건의 원화 SRI 채권 발행, 80건은 만기가 도래하여 소멸, 2021년 12월 31일 현재 1,149건의 SRI 채권이 사회책임투자채권 세그먼트에 등록

○ 2021년에 664건의 SRI 채권이 발행되어 전체 SRI 채권 발행건수 중 54% 차지

<SRI 채권 발행 건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녹색채권	3	18	10	119	150
사회적채권	1	184	304	372	861
지속가능채권	1	7	37	173	218
SRI 채권 전체	5	209	351	664	1,229

3) 발행 기관 수

□ 지금까지 SRI 채권을 발행한 기관의 수는 158사로, 2019년에 14사, 2020년에 23사였으나 2021년에 154사로 크게 증가

□ 발행사 중 26사는 2018년 이후 여러 해에 복수 개의 SRI 채권 발행

<SRI 채권 발행기관 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녹색채권	3	5	4	60	64
사회적채권	1	6	7	54	55
지속가능채권	1	4	14	52	58
SRI 채권 전체	4	14	23	154	158

4) 발행기관별 SRI 채권 발행규모

□ SRI 채권 누적 발행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약 106조원의 사회적채권 발행

○ 기업은행 7.8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3조원, 신용보증기금 5.1조원, 산업은행 3.5조원 순

○ 공공부문의 SRI 채권 발행규모는 약 142조원 규모로 전체 채권 발행규모의 82% 차지

○ 민간 금융권의 SRI 채권 발행규모는 약 19조원 규모로 전체 채권 발행규모의 11% 차지

□ 녹색채권 누적 발행규모는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가장 큼(각각 1.14조원, 1조원)

○ 공공부문의 녹색채권 누적 발행규모는 3.73조원으로 전체 누적 발행규모의 24% 차지

○ 민간 금융권의 녹색채권 누적 발행규모는 4.1조원으로 전체 누적 발행규모의 26% 차지

□ 사회적채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누적 발행규모가 가장 큼

○ 사회적채권의 발행은 공공부문이 주도(누적 발행규모의 97% 차지)

□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누적 발행규모가 가장 큼(각각 1.35조원, 1.25조원)

○ 민간 금융권 비중 73%(13.3조원), 공공부문은 12%(2.2조원)

5) 발행규모 분포

- 2021년 발행한 SRI 채권 중 82%가 2,000억원 이하 , 93%가 3,000억원 이하 규모
 - 평균 발행규모는 1,306억원, 중간값은 1,000억원이며, 최빈값은 300억원으로 53개의 채권 존재
- 2021년 발행 녹색채권 중 86%가 1,500억원 이하 규모
 - 단일 발행 채권 중 최대 발행규모는 4,000억원, 최소 발행규모는 100억원
 - 평균 발행규모는 1,047억원, 중간값은 900억원, 최빈값은 300억원으로 분석
- 2021년 발행 사회적채권 중 89%가 3,000억원 이하 규모
 - 단일 발행 채권 중 최대 규모는 1.1조원이고, 최소 규모는 70억원
 - 평균 발행규모는 1,662억원, 중간값은 1,474억원, 최빈값은 400억원으로 분석
- 2021년 발행 지속가능채권 중 84%가 1,000억원 이하 규모
 - 단일 발행 채권 중 가장 큰 규모는 5,000억원이고, 가장 작은 규모는 100억원임
 - 평균 발행규모는 720억원, 중간값은 500억원, 최빈값은 200억원으로 분석

2. 만기 및 이자율

-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세그먼트에 등록된 SRI 채권의 만기 및 이자율을 조사, 분석

1) SRI 채권

- (SRI 채권) 2019~21년 동안 5년 만기 채권의 발행규모가 47.3조원으로 가장 큼
 - 3년(33.8조원), 10년(20.4조원), 2년(18.7조원), 7년(14.6조원) 만기 순으로 발행규모가 큼
- 채권 수는 만기 3년(223건), 5년(221건), 2년(135건), 10년(130건) 순으로 많음

2) 녹색채권

- 2019~21년 동안 3년 만기 채권의 총 발행규모가 5.6조원으로 가장 큼
 - 다음으로 5년(4조원), 10년(1.9조원) 만기 순으로 발행규모가 큼
- 채권 수는 3년(46건)과 5년(37건) 만기 채권이 가장 많았음
 - 2021년에는 만기 20년 이상과 영구채 첫 발행
- 2021년에는 3년 만기 채권이 발행규모 및 발행 건수가 가장 높음(4.7조원, 37건)

3) 사회적채권

- 2019~21년 동안 5년 만기 채권의 발행규모가 41조원으로 가장 큼

- 3년(23.5조원), 2년(16.1조원), 10년(15.5조원), 7년(13.4조원) 만기 순으로 발행규모가 큼
- 만기가 5년, 3년, 10년, 2년 순으로 채권 수가 많음(각각 153, 126, 100, 95건)
 - 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채권 비중이 23%(SRI 채권의 경우 18%임)
- 2021년 5년 만기 채권(37건, 17.6조원)이 발행규모와 발행건수 가장 높음

4) 지속가능채권

- 2019~21년 동안 3년 만기 채권의 발행규모가 4.7조원으로 가장 큼
 - 다음으로 10년(2.9조원), 5년(2.2조원), 영구(1.2조원) 만기 순으로 발행규모가 큼
- 3년 만기 지속가능채권의 수가 51건으로 가장 많음
 - 5년, 2년 만기 순으로 채권 수가 많음(각각 31, 29개 채권)
 - 녹색채권과 유사하게 만기 10년 초과 채권의 발행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 2021년에도 3년 만기 채권이 발행규모와 발행 건수에서 가장 우수 (3.2조원, 40건)

3. 신용등급

-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세그먼트 등록 SRI 채권의 증권신고서 내 신용등급 조사, 분석
- SRI 채권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C 등급까지 분포
 - AAA 신용등급의 SRI 채권 수가 가장 많고, 발행규모도 가장 큼(126.6조원)
 - 신용등급 A 이상의 채권 비중은 98.8%임
- 녹색채권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BBB 등급까지 분포
 - AA 등급의 녹색채권 발행이 가장 많고, 총 규모도 가장 큼(8.6조원)
 - A 등급 이상의 비중은 채권 수 기준 95%, 발행규모 기준 96% 수준
- 사회적채권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C 등급까지 분포
 - AAA 신용등급의 사회적채권이 가장 많고, 총 규모도 가장 큼(119.9조원)
 - C 등급 채권의 경우 '중진공2021제1차스케일업유동화전문유한회사 제3회 후순위 무보증사채'임
- 지속가능채권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BBB 등급까지 분포
 - 녹색채권과 유사하게 AA등급의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가장 많고, 발행규모도 가장 큼(12.5조원)
 - A 등급 이상의 비중은 채권 수 기준 99%, 발행규모 기준 99.3%

4. 준거원칙

- 세 채권 모두 ICMA의 녹색채권원칙, 사회적채권원칙,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을 준거하여 발행
 - CBI의 기후채권기준을 준거하는 녹색채권은 아직 시장에 없음
 - 녹색채권 중 73%는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을 병행 준거
 -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을 단독 준거하는 녹색채권은 전무

5. 외부평가

1) 발행 전 외부평가

- SRI 채권과 일반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체계(Framework)의 마련과 외부평가임
 - 외부평가는 제3자가 관리체계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채권 및 그 관리체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에서는 발행 전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국내 SRI 채권 외부평가에는 크게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가 참여, 회계법인은 관리체계의 준거원칙 부합성에 대한 제2자 의견(Second Party Opinion)의 일종인 확인(Assurance) 서비스 제공, 신용평가사는 부합성에 대한 평가(Scoring/Rating) 서비스 제공

(1) SRI 채권

- 해외 ESG 평가기관인 Sustainalytics가 가장 많은 외부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
- 국내 외부평가기관 중 회계법인은 2021년까지 349건, 약 32조원 규모의 SRI 채권을 외부평가하였고, 신용평가사는 231건, 약 29조원 규모의 SRI 채권을 외부평가
 - 회계법인 중 Deloitte 안진이, 신용사 중에서는 한국신용평가가 가장 건수가 많음(209건, 147건)
- 누적 발행규모에서는 한국신용평가가 가장 크고(19.6조원), Deloitte 안진(18.5조원) 순임
- 국내에는 제2자 의견과 평가 방식만 활용, 제2자 의견이 누적 채권 수 기준 약 80% 차지
 - 제2자 의견은 회계법인과 ESG 평가기관(Sustainalytics, CICERO)이 수행

(2) 녹색채권

- 회계법인은 2021년까지 53건, 약 5.5조원 규모의 녹색채권 외부평가, 신용평가사는 86건, 8.9조원
 - 녹색채권 외부평가는 2021년부터 신용평가사들이 주도적으로 수행
- 누적 발행규모에서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큼(각각 3.14조원, 3.15조원)
 - 회계법인 중에서는 Deloitte 안진이 가장 큰 2.5조원의 누적 발행규모를 보임
 - 해외기관으로 CICERO가 유일하게 녹색채권 외부평가를 수행함

녹색채권에서는 외부평가 유형 중 평가(Scoring/Rating) 방식의 비중이 누적 채권 수 기준 60%

(3) 사회적채권

Sustainalytics가 가장 많은 외부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채권 관리체계에 대한 확인(Assurance) 서비스 제공

회계법인은 누적 169건, 약 17.6조원 규모의 사회적채권 외부평가, 신용평가사는 74건, 15조원

○ Deloitte 안진과 PWC 삼일이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각각 78건, 66건), 신평사 중에서는 한국신용평가가 가장 건수가 많음(62건)

○ 회계법인의 외부평가 건수는 신용평가사의 두배가 넘으나 누적 발행규모에서는 15% 차이 존재

○ 특히 2021년 외부평가 실적을 보면, 건수는 회계법인이 110건으로 70건의 신용평가사보다 많으나 발행규모에서는 신용평가사는 14.9조원으로 회계법인의 12조원 상회

누적 발행규모에서는 국내 외부평가기관 중 한국신용평가가 가장 큼

○ 한국신용평가는 누적 발행규모 13.3조원, 2021년에만 13.1조원 규모의 사회적채권을 외부평가

사회적채권에서는 외부평가 유형 중 제2자 의견이 누적 채권 수 기준 90% 차지

○ 가장 많은 채권을 발행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2자 의견 방식의 외부평가 받았기 때문

(4) 지속가능채권

국내 외부평가기관 중 회계법인은 2021년까지 127건, 약 9조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외부평가하였고, 신용평가사는 71건, 5조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외부평가

○ 회계법인 중에서는 Deloitte 안진(105건), 신평사 중에서는 한국신용평가(54건)가 가장 많음

- 한국신용평가는 2020년부터 SRI 채권 외부평가서비스 제공

- 2021년 외부평가 건수는 회계법인이 96건으로 69건의 신용평가사보다 훨씬 많으나 발행 규모에서는 회계법인 5.4조원, 신용평가사 4.9조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음

누적 발행규모에서는 Deloitte 안진이 가장 크고, 한국신용평가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Deloitte 안진은 누적 발행규모 6.5조원, 2021년에 3.9조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 외부평가 수행

○ 한국신용평가는 누적 발행규모 3.2조원, 2021년에 3.1조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 외부평가 수행

○ 한국기업평가는 2021년 1.8조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 외부평가 수행

지속가능채권에서는 제2자 의견의 비중이 누적 채권 수 기준 67%로 평가보다 높음

2) 발행 후 외부평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행 후 보고에 대한 외부평가는 발행사 자율로 수행하고 있음

○ 한국거래소의 운영지침에서는 채권 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발행 후 보고, 즉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 제출을 하도록 함(제8조 제1항)

□ 2021.12.31. 현재, 총 819건의 발행 후 보고 중 25건이 외부평가를 받음(3.1%)

○ 녹색채권의 발행 후 외부평가비율이 9.4%로 가장 높음(지속가능채권 8.7%, 사회적채권 1.4%)

<발행 후 외부평가 현황>

구분	보고(A)	외부평가(B)	외부평가 비율(=B/A*100(%))
녹색채권	53	5	9.4%
사회적채권	639	9	1.4%
지속가능채권	127	11	8.7%
계	819	25	3.1%

○ 그린워싱 방지 위해 발행 후 외부평가를 통해 계획에 충실한 프로젝트 수행 점검 중요

○ 또한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서 검증하는 것이 그린워싱 방지에 도움

<외부평가기관별 발행 후 외부평가 현황>

외부평가기관명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Deloitte 안진	1	9	10
한국기업평가	2	0	1
EY 한영	2	0	0
계	5	9	11

○ 사회적채권은 모두 Deloitte 안진에서 외부평가 수행

○ 유일하게 발행 전후 평가를 실시한 한국기업평가의 발행 전/후 평가결과는 모두 1등급이었음

6. 관리체계

□ 관리체계(Framework)는 그 내용에 따라 범용과 전용으로 구분

○ 범용 관리체계 : 채권을 여러번 발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관리체계

○ 전용 관리체계 : 발행하고자 하는 특정 채권에 대한 관리체계

□ 전체 발행 채권의 43%는 범용 관리체계, 나머지 57%는 전용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

○ 사회적채권 전용 관리체계 건수는 한국주택금융공사(548건)와 한국장학재단(58건)이 대부분

○ 이 두 경우를 제외하면, 범용 관리체계가 시장 내에서 더 선호

<범용 및 전용 관리체계 현황>

구분	범용 관리체계	전용 관리체계
녹색채권	125	18
사회적채권	157	631
지속가능채권	213	3
계	495	652

○ 전용 관리체계의 비중을 살펴보면, 녹색채권은 13%, 지속가능채권은 1%, 사회적채권은 80%임

7. 발행 목적 확인

1) 확인 경로

- 관리체계, 발행 전 외부평가 보고서, 발행 후 보고를 직접 검토하여 발행 목적을 조사 및 확인
 - 1,149건 SRI 채권 중 1,026건은 발행목적 상세 확인, 122건은 포괄적인 발행목적만 확인
 - 상세 발행목적은 관리체계 652건, 발행 전 외부평가보고서 249건, 사후보고에서 125건 확인

<발행목적 확인경로>

구분	총계	포괄적 확인*	상세 확인			
			소계	관리체계	외부평가	사후보고
녹색채권	145	20	124	18	86	20
사회적채권	788	59	729	631	59	39
지속가능채권	216	43	173	3	104	66
계	1,149	122	1,026	652	249	125

* 포괄적 확인은 범용 관리체계에서 대상 프로젝트 목록을 확인한 것을 의미함

- 1,149건 중 246건(21%)은 관리체계와 발행 전 외부평가 보고서로 발행목적 확인할 수 없었음
 - 범용 관리체계에 대한 발행 전 외부평가보고서에서 상세 발행 목적이 명시되지 않는 것은 외부평가보고서의 품질에 대한 의문 발생
 - EU 녹색채권규정(안)에서는 발행채권 팩트시트(Factsheet)를 외부검토 후 제출 의무화
 - 또한 관리체계에 발행 목적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행 전 외부평가보고서에 기재된 경우는 발행 전 외부평가의 필요성 재확인

2) 발행 목적 조사 결과

- 하나의 채권에 여러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발행 목적별 채권 수의 비중 산정
 - SRI 채권 발행 목적 중 취약계층 주택 지원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13%, 친환경 운송수단이 12%, 취약계층 금융지원이 12%로 나타남
- 녹색채권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이 41%, 친환경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이 30% 차지
 - CBI(2021)에 따르면, 채권자금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운송 순임
 - 사회적채권에서는 취약계층 주택 지원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 지속가능채권은 친환경 운송수단의 비중이 23%, 취약계층 금융지원이 18% 순

8. SRI 채권 주관 및 인수 실적

1) 주관 실적

- 2021년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전체 약 48% 차지(공동 주관도 1건으로 간주)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증권신고서 검색, 데이터 수집

□ 2021년, KB증권이 가장 많은 SRI 채권 발행 주관, 20% 차지

○ 녹색채권 발행 주관 실적은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전체 63% 차지

○ 사회적채권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가장 우수(전체 실적의 30% 차지)

○ 지속가능채권에서는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전체 실적의 50% 차지

2) 주관사 인수 실적

□ 2021년 SRI 채권 인수 실적을 보면, 총 31.6조원의 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됨

○ KB증권(131건, 약 4조원)과 한국투자증권(137건, 3.7조원)이 인수 실적 및 건수 가장 우수

○ 녹색채권에서는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전체의 43% 차지

○ 2021년 사회적채권 인수 실적을 보면, 한국투자증권(전체 실적의 13%)과 KB증권(10%)이 우수

○ 2021년 지속가능채권 전체 인수 실적의 22%를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차지

□ 2021년 평균 인수 수수료는 0.12%였으며, 최댓값은 0.5%, 최솟값은 0.01%로 조사됨

○ 세 SRI 채권 중 사회적채권이 0.06%로 가장 낮았으며, 녹색채권이 0.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수 수수료율은 전체적으로 0.05% 이하에서 채권 수가 가장 많음(녹색채권은 0.15~0.2% 구간)

III. 개선필요사항 및 정책적 제언

□ 발행 전 구체적인 발행목적 공시 노력 부족

○ 발행 전, 관리체계 또는 외부평가보고서를 통해 채권 발행 목적 및 자금 사용 계획 공개 필요

○ 범용 관리체계에 대한 확인(Assurance)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발행 후 보고 전까지 채권의 발행 목적 및 자금 사용 계획을 파악하기 힘들(전체의 21%)

○ (제언) 발행 전 외부평가의 강화를 통해 SRI 채권 발행의 투명성 강화

- 발행 전 외부평가보고서에 발행 목적, 자금 사용 계획, 대상 프로젝트 내용 기술 의무화

- 확인(Assurance) 서비스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이 채권 발행 목적, 자금 사용 계획,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외부평가 의견을 제시

□ 발행 후 보고의 강화

○ 그린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행 후 보고 및 외부검토가 매우 중요

- 현재 발행 후 외부평가는 ICMA 등 국제원칙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채권 운영 및 관리의 충실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자체 보고보다는 외부평가가 바람직

○ (제언) 자금 사용 완료 보고에 대한 외부평가 유도

- 자금사용 완료보고서(사회·환경영향 보고 포함)에 대한 외부평가 적극 권고

-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계약시, 발행 전과 후에 대한 외부평가 package 계약 유도

- EU 녹색채권 규정 초안에서는 자금 배분 완료시 외부평가 의무화

□ SRI 채권 가이드라인의 확충

- 세 종류의 SRI 채권 중 녹색채권만 가이드라인 존재
 -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은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마련 예정
 -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 또한 마련 필요
- 아울러 녹색채권가이드라인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 예정
 - 2021년 12월 31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 국내에 사회 분류체계는 아직 없음(2022년 2월, EU는 Social Taxonomy 초안 발표)
- (제언) 사회 분류체계, 사회적 영향 분석 모형 제시
 -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영향 분석을 위한 적용가능한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 사회분류체계도 녹색분류체계처럼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제시 필요

□ 원화 SRI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SRI 채권의 낮은 이자율로 투자자의 이익이 감소되고 있으나 투자자 지원방안은 없는 실정
- (제언) 감소한 투자자의 수익을 이자소득세 감면을 통해 일부 보전하는 방안 모색 가능
 -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에 마련되었으나 2014년 폐지(은행 발행 녹색채권 한정)

IV. 결론

□ 원화 SRI 채권시장은 2020년 6월 15일 개장하여 2021년 2019년 대비 약 4배로 성장

- 발행 채권 수의 증가에 따라 그린워싱의 잠재적 우려 또한 증가
 -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 개선 유도 및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바람직

□ 2022년은 SRI 채권의 제도적 개선에 주력 필요

-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발행 전 외부평가 강화 필요
 - 외부평가보고서에 채권 발행의 구체적인 목적 및 자금사용계획 의무 기재
 - 필요시, 외부평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발적인 개선 노력 유도
- 그린워싱 위험 최소화를 위해 발행 후 보고 강화 필요
 - 발행 후 외부검토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 적극 유도
- 녹색채권의 경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대비 필요
 - 내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적 적용 예상, 공시서식의 보완 등 제도 개선 추진
- 발행자가 보고 및 공시를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확충 필요
 -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 마련 노력 필요
 - 사회·환경 영향 보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비교 가능성 개선

목 차

I. SRI 채권 시장 경과	1
II. 시장 현황	3
1. 발행 규모, 채권 수, 및 발행자 현황	3
2. 만기 및 이자율	16
3. 신용등급	24
4. 준거원칙	27
5. 외부평가	30
6. 관리체계	39
7. 발행 목적 확인	41
8. SRI 채권 주관 및 인수 실적	44
III. 개선필요사항 및 정책적 제언	51
IV. 결 론	54
[첨부 1]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56

<표 차례>

<표 1> SRI 채권 발행 규모	3
<표 2> SRI 채권 발행 건수	5
<표 3> 2021년 SRI 채권 누적 발행규모	7
<표 4> 2021년 녹색채권 누적 발행규모	8
<표 5> 2021년 사회적채권 누적 발행규모	10
<표 6> 2021년 지속가능채권 누적 발행규모	11
<표 7> SRI 채권 발행규모 기초통계	13
<표 8> SRI 채권의 만기 및 이자율 현황	16
<표 9> 녹색채권의 만기 및 이자율 현황	19
<표 10> 사회적채권의 만기 및 이자율 현황	20
<표 11> 지속가능채권의 만기 및 이자율 현황	22
<표 12> SRI 채권 신용등급 현황	24
<표 13> 녹색채권 신용등급 현황	25
<표 14> 사회적채권 신용등급 현황	25
<표 15> 지속가능채권 신용등급 현황	26
<표 16> 발행된 SRI 채권의 준거원칙	27
<표 17> ICMA 녹색채권원칙(GBP)의 주요 내용	28
<표 18> CBI 기후채권기준(CBS)의 주요내용	29
<표 19> ICMA의 외부검토(External Review) 유형 분류	31
<표 20> SRI 채권 발행 전 외부평가 현황	32
<표 21> 녹색채권 발행 전 외부평가 현황	34
<표 22> 사회적채권 발행 전 외부평가 현황	35
<표 23> 지속가능채권 발행 전 외부평가 현황	37
<표 24> 발행 후 외부평가 현황	38
<표 25> 외부평가기관별 발행 후 외부평가 현황	38
<표 26> 범용 및 전용 관리체계 현황	39

<표 27> 전용 관리체계 현황	40
<표 28> 발행목적 확인경로	41
<표 29> 발행목적 확인 상세 현황	42
<표 30> SRI 채권의 주요 발행 목적	43
<표 31> 2021년 SRI 채권 주관 실적	44
<표 32> 2021년 녹색채권 주관 실적	45
<표 33> 2021년 사회적채권 주관 실적	45
<표 34> 2021년 지속가능채권 주관 실적	46
<표 35> 2021년 SRI 채권 인수실적	46
<표 36> 2021년 녹색채권 인수실적	47
<표 37> 2021년 사회적채권 인수실적	48
<표 38> 2021년 지속가능채권 인수실적	49
<표 39> 2021년 SRI 채권 인수 수수료 기초 통계	50
<표 40> SRI 채권 인수 수수료 히스토그램	50

<그림 차례>

<그림 1> SRI 채권 발행규모 추이	4
<그림 2> SRI 채권 발행 건수 추이	5
<그림 3> SRI 채권 발행기관 수	6
<그림 4> 2021년 SRI 채권 발행규모 분포	12
<그림 5> 2021년 녹색채권 발행규모 분포	13
<그림 6> 2021년 사회적채권 발행규모 분포	14
<그림 7> 2021년 지속가능채권 발행규모 분포	15
<그림 8> 원화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절차	30
<그림 9> SRI 채권 인수 수수료 분포	50

I. SRI 채권 시장 경과

□ 제도 마련

- 2019.12.31.,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제정¹⁾
 - 2021.1.22., 준거원칙에 「한국형 녹색채권가이드라인」 추가
 - 2021.11.23., 등록신청서 양식 수정, 등록취소신청서 마련, 조달자금 사용 보고 관련 문구 수정
- 2020.6.15.,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 개설
 - 2021.11.29., 공시 및 제공자료 추가를 위한 업데이트 실시
- 2020.12.30.,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녹색채권가이드라인」 공동 제정
- 2021.12.20., 한국거래소 ESG 포털(www.esgportal.kr) 개설,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 2021.12.31.,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제정
향후 녹색채권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부속서 1. 녹색프로젝트 예시」 대체 예정

□ SRI 채권의 구성²⁾

-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채권은 발행자금이 친환경 또는 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성
- 녹색채권(Green Bond)
 - 정의 :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

1) 세부내용은 [첨부 1] 참조

2) <http://sribond.krx.co.kr>

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한국수출입은행이 2013년에 국내 기관 최초로 외화 녹색채권 발행
- 민간기업 중에서는 현대캐피탈이 2016년 최초로 원화 녹색채권 발행
- 원화 녹색채권은 한국산업은행이 2018년 5월에 3,000억원 규모로 최초 발행

○ 사회적채권(Social Bond)

- 정의 :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시아 최초로 3억 달러 물 채권(water bond) 발행
- 원화 사회적채권은 한국산업은행이 2018년 10월에 3,000억원 규모로 첫 발행

○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 정의 : 환경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원화 지속가능채권은 2018년 12월에 한국수출입은행이 3,500억원 규모로 첫 발행

II. 시장 현황

1. 발행 규모, 채권 수, 및 발행자 현황³⁾

1) 발행 규모

□ 2021년까지 누적 발행규모는 약 172조원으로 조사

○ 사회적채권이 약 139조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지속가능채권은 약 18조원, 녹색채권은 15.5조원의 누적 발행 규모를 보임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9~21년 동안 약 106조원 규모의 사회적채권 발행

□ 2021년 SRI 채권 발행규모는 약 86.8조원이었으며, 사회적채권은 61.8조원,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은 발행규모가 비슷

○ 2021년 녹색채권은 12조 4,590억원, 지속가능채권은 12조 4,490억원 발행

- 2021년 12월 31일 현재, 2018~20년에 발행된 84.5조원 규모의 SRI 채권 중 약 11.6조원 규모의 채권이 만기가 도래하여 소멸됨

<표 1> SRI 채권 발행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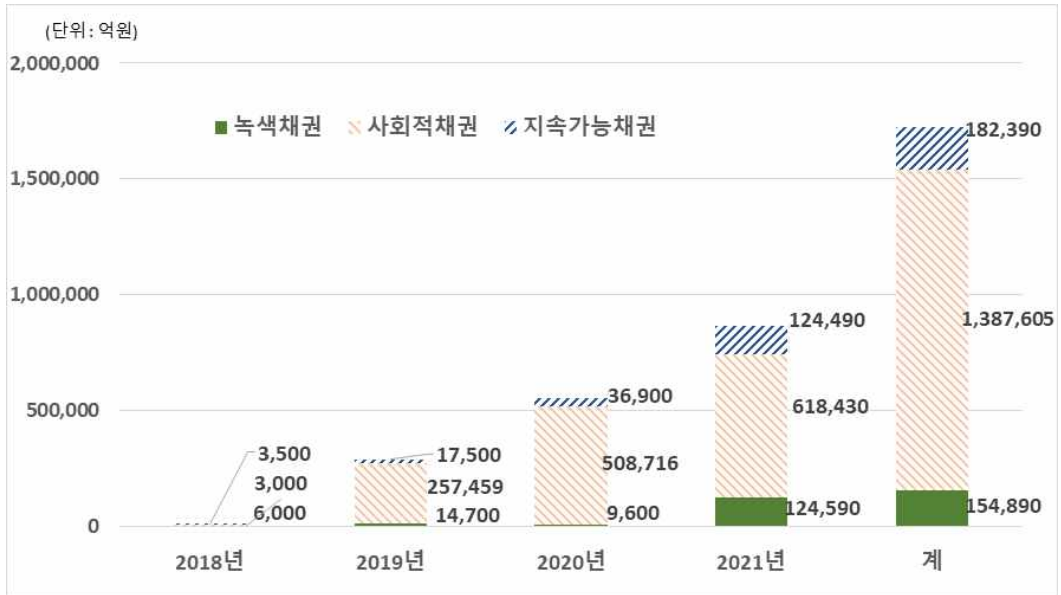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녹색채권	600,000 (500,000)	1,470,000 (130,000)	960,000 (50,000)	12,459,000	15,489,000 (680,000)
사회적채권	300,000 (300,000)	25,745,915 (5,743,300)	50,871,600 (4,081,500)	61,842,954	138,760,469 (10,124,800)
지속가능채권	350,000 (350,000)	1,750,000 (400,000)	3,690,000 (-)	12,449,000	18,239,000 (750,000)
SRI 채권 전체	1,250,000 (1,150,000)	28,965,915 (6,273,300)	55,521,600 (4,131,500)	86,750,954	172,488,469 (11,554,800)

※ 괄호 안의 값은 해당연도에 발행한 채권 중 2021년 12월 31일 현재 소멸된 채권의 발행규모 합계임

3) 조사 대상 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세그먼트에 등록된 채권임

<그림 1> SRI 채권 발행규모 추이



2) 발행 건수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29건의 SRI 채권이 발행되었고, 2018~20년 발행한 SRI 채권 중 80건은 만기가 도래하여 소멸되어 2021년 12월 31일 기준 1,149건의 SRI 채권이 사회 책임투자채권 세그먼트에 등록되어 있음

○ 작년에 664건의 SRI 채권이 발행되어 전체 SRI 채권 발행건수 중 54% 차지

○ 2019년 이후 SRI 채권 발행 건수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띠고 있음

- 2020년 녹색채권 발행건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

□ 2021년, 372건의 사회적채권이 발행되어 2021년 SRI 채권 발행 건수의 56% 차지

○ 지속가능채권이 173건, 녹색채권은 119건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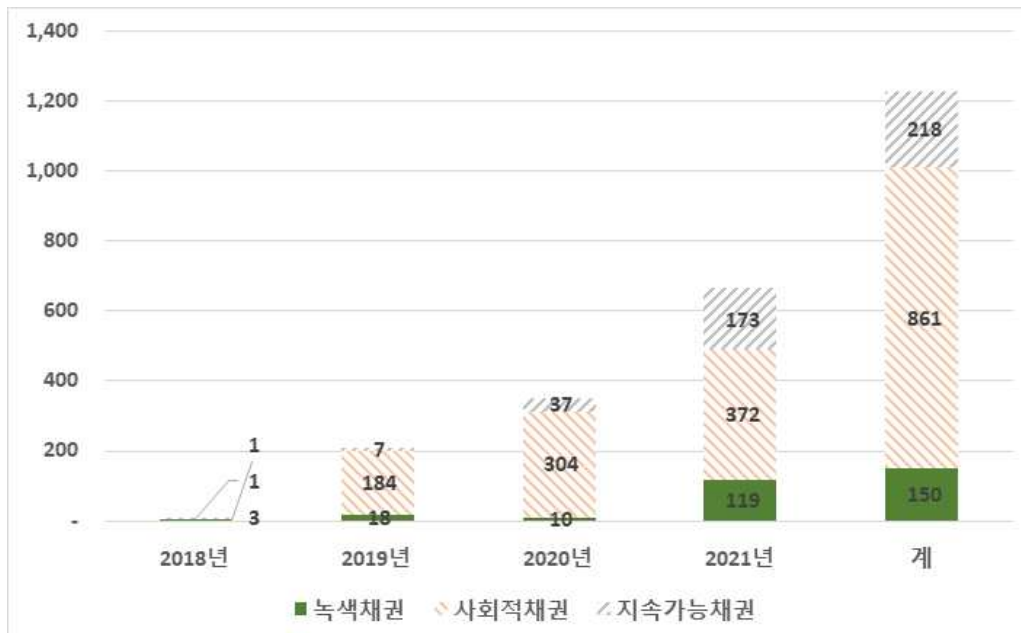
<표 2> SRI 채권 발행 건수

(단위 :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녹색채권	3 (1)	18 (16)	10 (9)	119	150 (145)
사회적채권	1 (0)	184 (138)	304 (278)	372	861 (788)
지속가능채권	1 (0)	7 (6)	37 (37)	173	218 (216)
SRI 채권 전체	5 (1)	209 (160)	351 (324)	664	1,229 (1,149)

※ 괄호 안의 값은 해당연도에 발행한 채권 중 2021년 12월 31일 현재 세그먼트에 등록된 채권의 수를 나타냄

<그림 2> SRI 채권 발행 건수 추이



3) 발행 기관 수

□ 지금까지 SRI 채권을 발행한 기관의 수는 166사로, 2019년에 14사, 2020년에 25사였으나 2021년에 166사로 크게 증가

○ 녹색채권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발행기관 수는 각각 5, 4사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 60사로 SRI 채권 중 가장 크게 증가⁴⁾

4) 만도는 2021년 4월 두건의 녹색채권(각각 1,900억원, 600억원)을 발행하였으나, 이후 기업 분할로 인하여 6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은 에이치엘클레무브로 이전되었으며, 통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기업 분할 후 상황을 반영하여 통계를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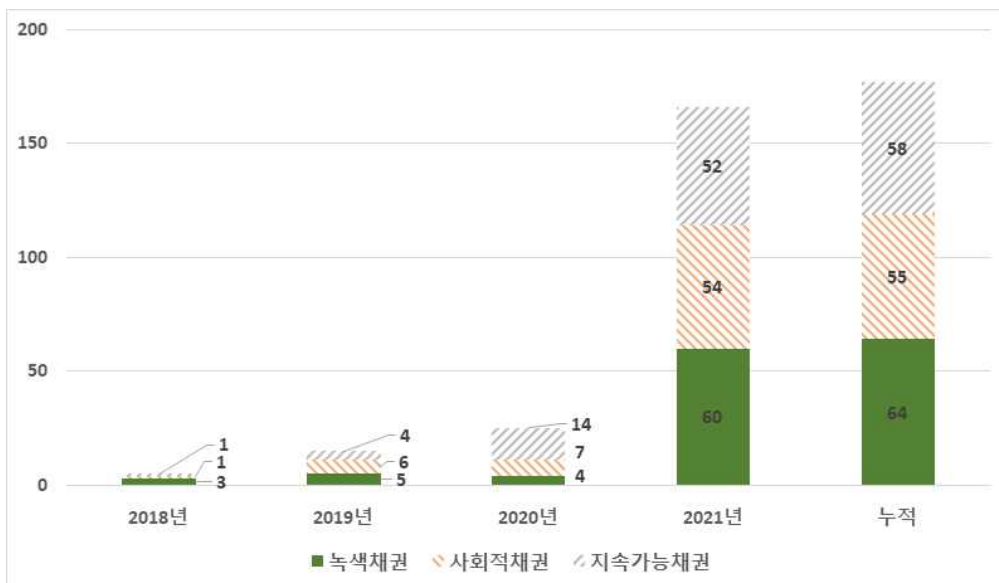
○ 2021년에 채권 발행 건수, 발행규모의 증가에 비례하여 발행기관의 수도 크게 증가

□ 발행사 중 26사는 2018년 이후 여러 해에 복수개의 SRI 채권을 발행

○ 26사 중 13사는 세 종류의 SRI 채권 중 두 종류 이상의 SRI 채권을 여러 번 발행

○ 나머지 13사는 한 종류의 SRI 채권을 여러 번 발행

<그림 3> SRI 채권 발행기관 수



* 여러 해 복수개의 채권을 발행한 발행기관은 각 연도별로 1사로 집계하였으나, 총계에서는 1사로 집계함

4) 발행기관별 SRI 채권 발행규모

(1) SRI 채권

□ SRI 채권 누적 발행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약 106조원의 사회적채권 발행

○ 기업은행 7.8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3조원, 신용보증기금 5.1조원, 산업은행 3.5조원, 한국장학재단 3.1조원, 예금보험공사 2.8조원 등이 뒤를 잇고 있으며, 공공부문 기관들의 SRI 채권 발행이 두드러짐⁵⁾

○ 공공부문⁶⁾의 SRI 채권 발행규모는 약 142조원 규모로 전체 채권 발행규모의 82% 차지

○ 민간 금융권의 SRI 채권 발행규모는 약 19조원 규모로 전체 채권 발행규모의 11% 차지

<표 3> 2021년 SRI 채권 누적 발행규모

(가나다순)(단위 : 백만원)

발행기관	발행규모	발행기관	발행규모	발행기관	발행규모
CI제일제당	60,000	만도	190,000	케이비카드	1,010,000
DGB금융지주	100,000	메리츠캐피탈	510,000	케이티	260,000
DGB캐피탈	180,000	미래에셋생명	300,000	팬오션	50,000
DL건설	39,000	미래에셋증권	100,000	포스코건설	140,000
DL에너지	15,000	미래에셋캐피탈	100,000	포스코인터내셔널	80,000
DL이앤씨	95,000	부산은행	200,000	하나금융투자	230,000
GS칼텍스	130,000	부산항만공사	200,000	하나은행	435,000
GS파워	100,000	비씨카드	50,000	하나카드	400,000
JB 우리캐피탈	520,000	산업은행	3,480,000	하나캐피탈	600,000
KB금융	610,000	산은캐피탈	80,000	한국공항공사	30,000
KB증권	110,000	삼성증권	100,000	한국남동발전	590,000
KB캐피탈	900,000	삼성카드	200,000	한국남부발전	380,000
LG디스플레이	500,000	세아제강	80,000	한국동서발전	380,000
LG전자	190,000	신용보증기금	5,098,245	한국서부발전	270,000
LG화학	820,000	신세계	60,000	한국수력원자력	540,000
NH투자증권	110,000	신한금융투자	100,000	한국수자원공사	80,000
POSCO홀딩스	200,000	신한은행	860,000	한국수출입은행	350,000
SGC에너지	29,000	신한카드	580,000	한국자산관리공사	1,000,000
SK	320,000	신한캐피탈	750,000	한국장학재단	3,360,000
SK렌터카	98,000	쌍용씨앤이	30,000	한국전력공사	800,000
SK에너지	500,000	아이비케이캐피탈	20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106,104,924
SK지오센트릭	90,000	애큐온캐피탈	140,000	한국중부발전	260,000
SK하이닉스	440,000	에스케이에코플랜트	500,000	한국철도공사	300,000
경남은행	100,000	에이치엘클레무브	60,000	한국토지주택공사	1,070,000
광주은행	100,000	에코비트	110,000	한국투자증권	150,000
교보생명	470,000	엔에이치농협캐피탈	200,000	한국해양진흥공사	150,000
국민은행	930,000	엠캐피탈	170,000	한양	60,000
기아	300,000	여수광양항만공사	50,000	한진	20,000
기업은행	7,780,000	예금보험공사	2,780,000	한화	150,000
농협금융지주	367,000	오케이캐피탈	50,000	한화건설	120,000
농협손해보험	100,000	우리금융지주	200,000	한화솔루션	100,000
농협은행	350,000	우리은행	1,250,0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60,000
대구은행	300,000	우리증권	20,000	현대건설기계	50,000
대한항공	350,000	우리카드	630,000	현대모비스	350,000
동원시스템즈	30,000	이랜드월드	100,000	현대삼호중공업	100,000
두산퓨얼셀	75,000	이마트	50,000	현대오일뱅크	400,000
롯데건설	40,000	이지스자산운용	40,000	현대일렉트릭	50,000

5)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통한 사회적채권 발행규모를 합산한 것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 발행규모와 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통한 사회적채권 발행규모를 합산한 것임

6) 공공기관, 공사, 공기업 등

(가나다순)(단위 : 백만원)

발행기관	발행규모	발행기관	발행규모	발행기관	발행규모
롯데글로벌로지스	5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100,000	현대자동차	400,000
롯데렌탈	490,000	인천도시공사	100,000	현대제철	500,000
롯데물산	400,000	인천항만공사	110,000	현대중공업	300,000
롯데쇼핑	170,000	전북은행	500,000	현대카드	1,640,000
롯데지주	11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270,300	현대캐피탈	1,510,000
롯데카드	450,000	지에스이앤알	30,000	현대커머셜	400,000
롯데캐피탈	650,000	지에스이피에스	130,000	효성중공업	72,000
롯데케미칼	200,000	지역난방공사	160,000		

(2) 녹색채권

- 녹색채권에서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이 누적 발행규모가 가장 큼(각각 1.14조원, 1조원)
- 공공부문의 녹색채권 누적 발행규모는 3.73조원으로 전체 누적 발행규모의 24% 차지
- 민간 금융권의 녹색채권 누적 발행규모는 4.1조원 규모로 녹색채권 전체 누적 발행규모의 26% 차지
- 녹색채권 발행한 적이 있는 기업 중 4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2021년 녹색채권 발행
- 2021년 녹색채권을 발행한 60개 기관 중 4개 기관(7)을 제외한 56개 기업은 녹색채권 신규 발행

<표 4> 2021년 녹색채권 누적 발행규모

(가나다순)(단위 : 백만원)

발행기관명	발행규모	발행기관명	발행규모	발행기관명	발행규모
DL에너지	15,000 (15,000)	롯데지주	60,000 (60,000)	한국남부발전	380,000 (280,000)
GS칼텍스	130,000 (-)	만도	190,000 (190,000)	한국동서발전	380,000 (380,000)
GS파워	100,000 (100,000)	산업은행	830,000 (330,000)	한국서부발전	270,000 (270,000)
KB금융	110,000 (110,000)	산은캐피탈	80,000 (80,000)	한국수자원공사	80,000 (80,000)
KB증권	110,000 (110,000)	삼성증권	100,000 (100,000)	한국철도공사	300,000 (300,000)
KB캐피탈	100,000 (-)	세아제강	80,000 (80,000)	한국토지주택공사	630,000 (630,000)
LG디스플레이	500,000	신세계	60,000	한국투자증권	150,000

7)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산업은행, 한국남부발전

(가나다순)(단위 : 백만원)

발행기관명	발행규모	발행기관명	발행규모	발행기관명	발행규모
	(500,000)		(60,000)		(150,000)
LG전자	190,000 (190,000)	신한은행	860,000 (660,000)	한양	60,000 (60,000)
SGC에너지	29,000 (29,000)	신한카드	180,000 (180,000)	한화	150,000 (150,000)
SK	320,000 (320,000)	쌍용씨앤이	30,000 (30,000)	한화건설	120,000 (120,000)
SK렌터카	98,000 (98,000)	에스케이에코플랜트	300,000 (300,000)	한화솔루션	100,000 (100,000)
SK에너지	500,000 (-)	에이치엘클레무브	60,000 (60,0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60,000 (260,000)
SK지오센트릭	90,000 (90,000)	에코비트	110,000 (-)	현대모비스	350,000 (350,000)
국민은행	100,000 (100,000)	우리종금	20,000 (20,000)	현대삼호중공업	100,000 (100,000)
기아	300,000 (300,000)	인천항만공사	110,000 (110,000)	현대오일뱅크	400,000 (400,000)
농협은행	150,000 (150,000)	지에스이앤알	30,000 (30,000)	현대자동차	400,000 (400,000)
대한항공	350,000 (350,000)	지에스이피에스	130,000 (130,000)	현대제철	500,000 (500,000)
동원시스템즈	30,000 (30,000)	지역난방공사	160,000 (160,000)	현대중공업	300,000 (300,000)
두산퓨얼셀	75,000 (75,000)	팬오션	50,000 (50,000)	현대카드	1,140,000 (450,000)
롯데글로벌로지스	50,000 (50,000)	포스코인터내셔널	80,000 (80,000)	현대캐피탈	1,000,000 (300,000)
롯데렌탈	490,000 (490,000)	한국남동발전	590,000 (590,000)	효성중공업	72,000 (72,000)
롯데물산	400,000 (400,000)				

* 괄호 안은 2021년 발행 규모임

(3) 사회적채권

□ 사회적채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누적 발행규모가 가장 큼

○ 사회적채권의 발행은 공공부문이 주도⁸⁾

-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채권 누적 발행규모는 134.5조원으로 전체 누적 발행규모의 97% 차지

○ 사회적채권 발행한 적이 있는 기업 31사 중 1사(한국수력원자력)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 30사는 2021년 사회적채권 발행

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유동화전문유한회사 통한 채권 발행 포함

○ 2021년 사회적채권을 발행기관 30사 중 8사⁹⁾를 제외한 22사는 사회적채권 신규 발행

<표 5> 2021년 사회적채권 누적 발행규모

(가나다순)(단위 : 백만원)

발행기관명	발행규모	발행기관명	발행규모	발행기관명	발행규모
CJ제일제당	60,000 (60,000)	부산항만공사	200,000 (20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100,000 (100,000)
SK하이닉스	440,000 (440,000)	산업은행	2,250,000 (550,000)	인천도시공사	100,000 (100,000)
경남은행	100,000 (100,000)	신용보증기금	5,098,245 (5,098,2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270,300 (6,270,300)
기업은행	6,430,000 (6,430,000)	신한카드	400,000 (200,000)	케이비카드	1,010,000 (760,000)
농협금융지주	367,000 (367,000)	엔에이치농협캐피탈	100,000 (100,000)	하나카드	100,000 (100,000)
농협은행	200,000 (200,000)	여수광양항만공사	50,000 (50,000)	한국수력원자력	300,000 (-)
롯데쇼핑	170,000 (170,000)	예금보험공사	2,780,000 (1,150,000)	한국자산관리공사	1,000,000 (1,000,000)
롯데카드	350,000 (200,000)	오케이캐피탈	50,000 (50,000)	한국장학재단	3,360,000 (1,180,000)
롯데캐피탈	50,000 (50,000)	우리카드	630,000 (53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106,104,924 (35,697,409)
미래에셋증권	100,000 (100,000)	이마트	50,000 (50,000)	한국토지주택공사	440,000 (440,000)
부산은행	100,000 (100,000)				

* 괄호 안은 2021년 발행 규모임

(4) 지속가능채권

□ 지속가능채권에서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누적 발행규모가 가장 큼(각각 1.35조원, 1.25조원)

○ 민간 금융권이 13.3조원의 누적 발행규모를 보여 73%의 높은 비중을 보임

○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채권 누적 발행규모는 2.2조원으로 전체 누적 발행규모의 12%로 나타나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에 비해 공공부문의 비중이 현저히 낮음

○ 지속가능채권 발행한 적이 있는 기업 58사 중 7사를 제외한 51사는 2021년 지속가능채권 발행

9)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케이비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 2021년 지속가능채권 발행기관 51사 중 9사¹⁰⁾를 제외한 나머지 42사는 지속가능채권 신규 발행

<표 6> 2021년 지속가능채권 누적 발행규모

(가나다순)(단위 : 백만원)

발행기관명	발행규모	발행기관명	발행규모	발행기관명	발행규모
DGB금융지주	100,000 (100,000)	롯데케미칼	200,000 (200,000)	전북은행	500,000 (500,000)
DGB캐피탈	180,000 (180,000)	메리츠캐피탈	510,000 (510,000)	케이티	260,000 (260,000)
DL건설	39,000 (39,000)	미래에셋생명	300,000 (300,000)	포스코건설	140,000 (140,000)
DL이앤씨	95,000 (95,000)	미래에셋캐피탈	100,000 (100,000)	하나금융투자	230,000 (230,000)
JB 우리캐피탈	520,000 (520,000)	부산은행	100,000 (-)	하나은행	435,000 (435,000)
KB금융	500,000 (-)	비씨카드	50,000 (50,000)	하나카드	300,000 (100,000)
KB캐피탈	800,000 (500,000)	산업은행	400,000 (-)	하나캐피탈	600,000 (300,000)
LG화학	820,000 (820,000)	삼성카드	200,000 (100,000)	한국공항공사	30,000 (30,000)
NH투자증권	110,000 (110,000)	신한금융투자	100,000 (100,000)	한국수력원자력	240,000 (240,000)
POSCO홀딩스	200,000 (200,000)	신한캐피탈	750,000 (550,000)	한국수출입은행	350,000 (-)
광주은행	100,000 (100,000)	아이비케이캐피탈	200,000 (200,000)	한국전력공사	800,000 (400,000)
교보생명	470,000 (470,000)	애뉴온캐피탈	140,000 (140,000)	한국중부발전	260,000 (150,000)
국민은행	830,000 (830,000)	에스케이에코플랜트	200,000 (200,000)	한국해양진흥공사	150,000 (150,000)
기업은행	1,350,000 (-)	엔에이치농협캐피탈	100,000 (100,000)	한진	20,000 (20,000)
농협손해보험	100,000 (100,000)	엠캐피탈	170,000 (170,000)	현대건설기계	50,000 (50,000)
대구은행	300,000 (300,000)	우리금융지주	200,000 (200,000)	현대일렉트릭	50,000 (50,000)
롯데건설	40,000 (40,000)	우리은행	1,250,000 (300,000)	현대카드	500,000 (500,000)
롯데지주	50,000 (-)	이랜드월드	100,000 (100,000)	현대캐피탈	510,000 (280,000)
롯데카드	100,000 (100,000)	이지스자산운용	40,000 (40,000)	현대커머셜	400,000 (-)
롯데캐피탈	600,000 (600,000)				

* 괄호 안은 2021년 발행 규모임

10) 우리은행, KB캐피탈, 한국전력공사, 신한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하나카드, 한국중부발전, 삼성카드

5) 발행규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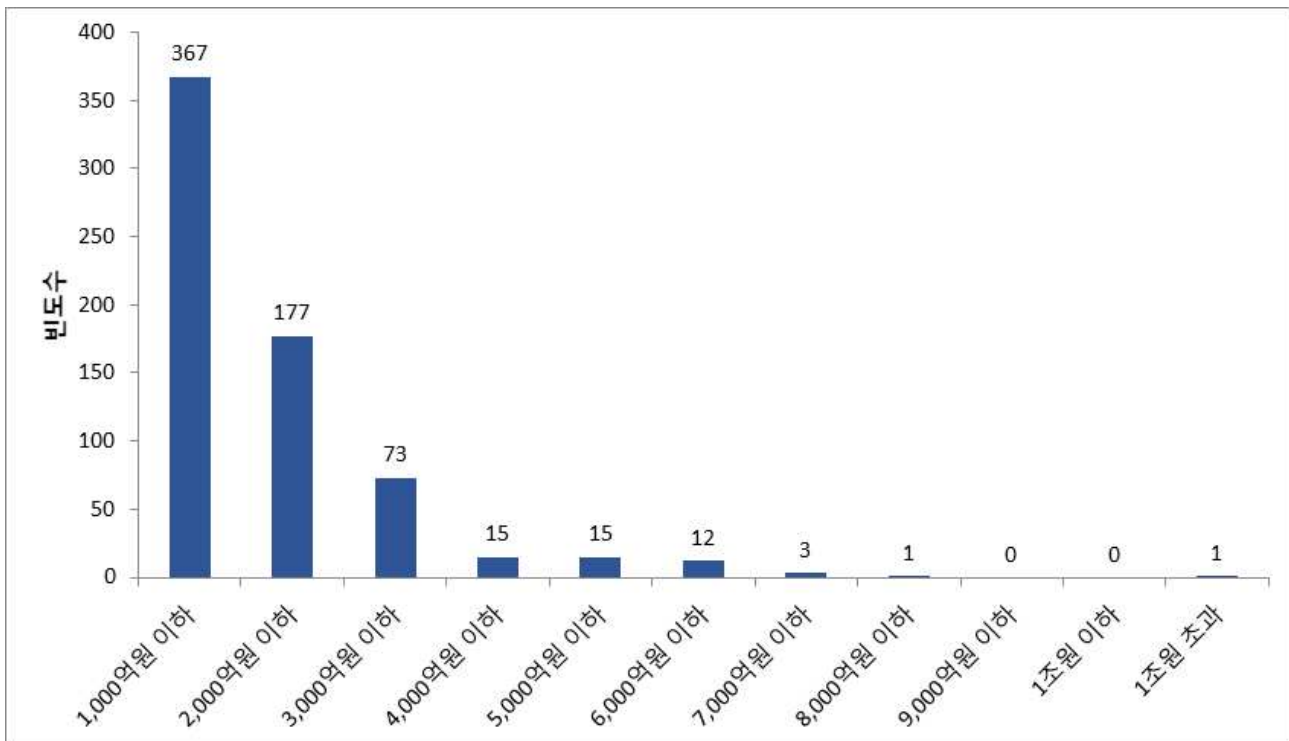
(1) SRI 채권

□ 2021년 발행한 SRI 채권 중 82%가 2,000억원 이하 규모, 93%가 3,000억원 이하 규모

○ 평균 발행규모는 1,306억원, 중간값은 1,000억원이며, 최빈값은 300억원으로 53개의 채권이 분포하며, 다음으로 100억원 규모의 37개 채권이 있음

○ 단일 발행 채권 중 가장 큰 규모는 중소기업은행이 2021년 8월에 발행한 사회적채권으로 1.1조원이고, 가장 작은 규모는 7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1년 6월 발행한 사회적채권임

<그림 4> 2021년 SRI 채권 발행규모 분포



<표 7> SRI 채권 발행규모 기초통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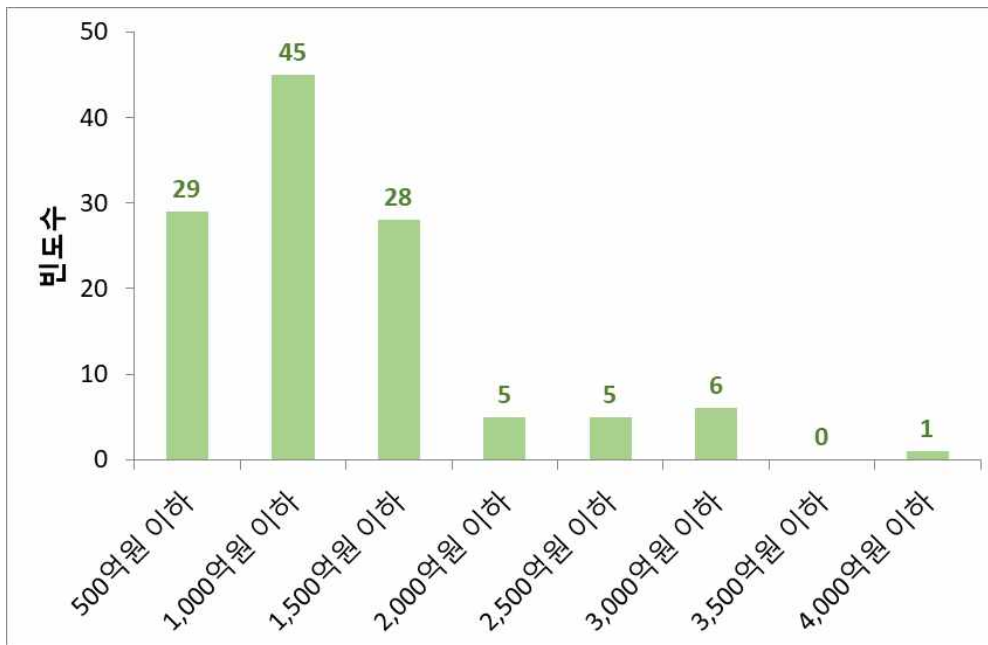
구분	SRI 채권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채권 수	664	119	372	173
평균	130,649	104,697	166,245	71,960
표준편차	126916	71381	144426	83253
중간값	100,000	90,000	147,405	50,000
최빈값	30,000	30,000	40,000	20,000
최대값	1,100,000	400,000	1,100,000	500,000
최솟값	7,000	10,000	7,000	10,000

(2) 녹색채권

□ 2021년 발행 녹색채권 중 86%가 1,500억원 이하 규모

- 단일 발행 채권 중 최대 발행규모는 4,000억원으로 2021년 5월 신한은행이 발행한 녹색채권이며, 최소 발행규모는 100억원으로 2021년 11월 한국동서발전이 발행
- 평균 발행규모는 1,047억원, 중간값은 900억원이고 최빈값은 300억원으로 12개의 녹색채권이 해당

<그림 5> 2021년 녹색채권 발행규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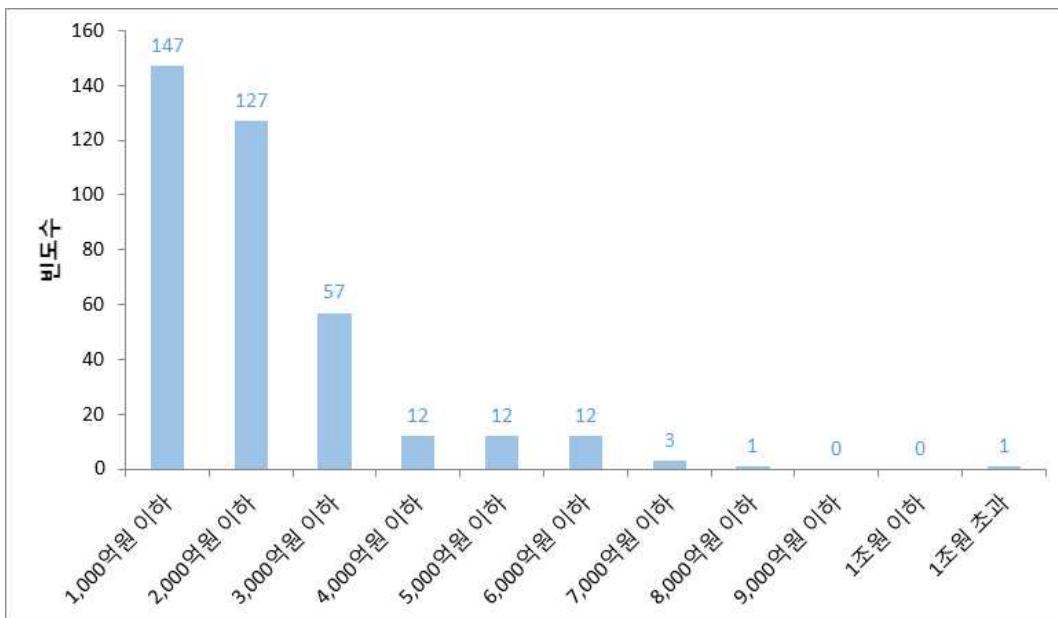


(3) 사회적채권

□ 2021년 발행 사회적채권 중 89%가 3,000억원 이하 규모

- 단일 발행 채권 중 가장 큰 규모는 중소기업은행이 2021년 8월에 발행한 사회적채권으로 1.1조원이고, 가장 작은 규모는 7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1년 6월 발행한 사회적채권임
- 평균 발행규모는 1,662억원, 중간값은 1,474억원이고 최빈값은 400억원으로 19개의 사회적채권이 해당

<그림 6> 2021년 사회적채권 발행규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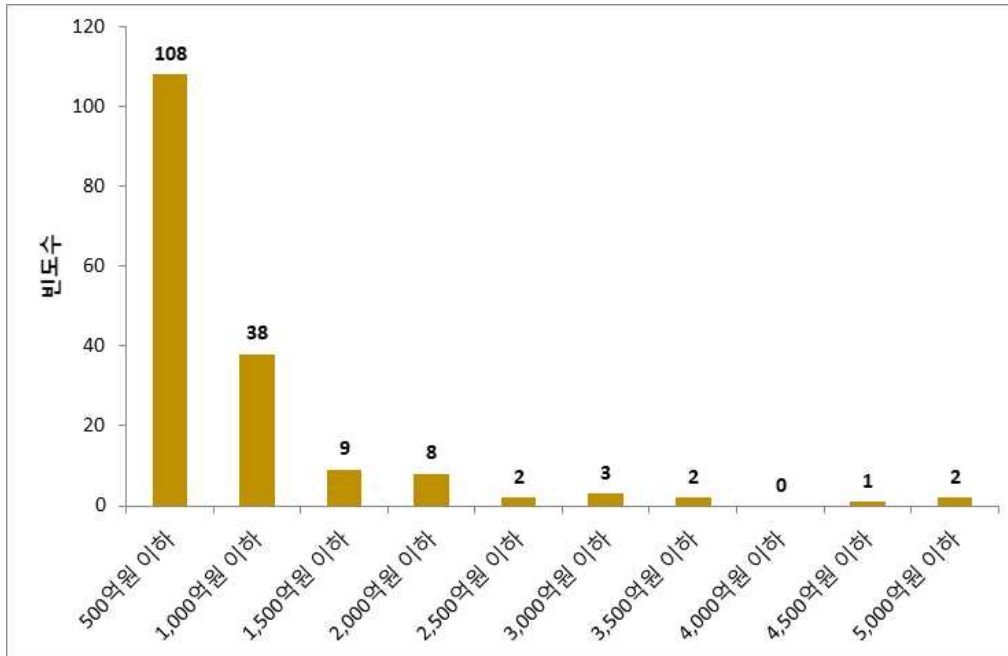
(4) 지속가능채권

□ 2021년 발행 지속가능채권 중 84%가 1,000억원 이하 규모

- 단일 발행 채권 중 가장 큰 규모는 국민은행이 2021년 2월에 발행한 지속가능채권으로 5,000억원이고, 가장 작은 규모는 100억원으로 2021년 JB 우리캐피탈, 롯데캐피탈, 애규온캐피탈, KB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이 발행한 지속가능채권임

- 평균 발행규모는 720억원, 중간값은 500억원이고 최빈값은 200억원으로 27개의 지속가능채권이 분포하며, 20개의 지속가능채권이 100억원 규모로 발행되었음

<그림 7> 2021년 지속가능채권 발행규모 분포



2. 만기 및 이자율

□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세그먼트에 등록된 SRI 채권의 만기 및 이자율을 조사하여 분석함

1) SRI 채권

□ 2019~21년 동안 5년 만기 채권의 발행규모가 47.3조원으로 가장 큼

○ 다음으로 3년(33.8조원), 10년(20.4조원), 2년(18.7조원), 7년(14.6조원) 만기 순으로 발행규모가 큼

□ 채권 수는 만기 3년과 5년인 채권이 가장 많았으며(각각 223, 221건), 다음으로 2년과 10년의 만기 채권이 많음(각각 135, 130건)

○ 이자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2021년이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2021년 하반기부터 기준 금리가 인상되어 채권 이자율도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2021년에는 5년 만기 채권이 발행규모가 22.7조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3년 만기 채권은 21.3조원의 발행규모를 보였으나, 2021년 3년 만기 채권이 149건 발행되어 발행 건수가 가장 많았고 5년 만기 채권은 127건 발행

○ 2019년과 2020년에는 5년 만기 채권은 발행규모와 발행 건수 모두 가장 높았음

- 2019년에는 5년 만기 채권 다음으로 10년 만기 채권이 발행규모와 발행건수가 높았으나, 2020년에는 발행규모 및 발행 건수가 증가한 2년과 3년 만기 채권이 차지

<표 8> SRI 채권의 만기 및 이자율 현황

만기 (년)	이자율(%)				SRI 채권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			1.176	1.176	(0)	(0)	5,898,700 (35)	5,898,700 (35)
1.1			2.165	2.165	(0)	(0)	30,000 (2)	30,000 (2)

만기 (년)	이자율(%)				SRI 채권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2			1.850	1.850	- (0)	- (0)	50,000 (2)	50,000 (2)
1.25			1.212	1.212	- (0)	- (0)	20,000 (1)	20,000 (1)
1.4			2.011	2.011	- (0)	- (0)	75,000 (2)	75,000 (2)
1.5		1.225	1.686	1.667	- (0)	60,000 (1)	2,000,000 (23)	2,060,000 (24)
1.6		1.059		1.059	- (0)	50,000 (1)	- (0)	50,000 (1)
1.7			2.175	2.175	- (0)	- (0)	95,000 (3)	95,000 (3)
1.75			2.806	2.806	- (0)	- (0)	60,000 (1)	60,000 (1)
1.9			2.027	2.027	- (0)	- (0)	170,000 (2)	170,000 (2)
2		1.158	1.696	1.489	- (0)	8,250,100 (52)	10,411,852 (83)	18,661,952 (135)
2.1			1.483	1.483	- (0)	- (0)	190,000 (2)	190,000 (2)
2.2			2.064	2.064	- (0)	- (0)	140,000 (4)	140,000 (4)
2.25			1.739	1.739	- (0)	- (0)	190,000 (4)	190,000 (4)
2.4			2.027	2.027	- (0)	- (0)	150,000 (2)	150,000 (2)
2.5	1.490	1.429	1.831	1.757	200,000 (1)	120,000 (3)	840,000 (17)	1,160,000 (21)
2.6			1.588	1.588	- (0)	- (0)	100,000 (2)	100,000 (1)
2.8		1.324		1.324	- (0)	50,000 (1)	- (0)	50,000 (1)
2.9		1.529	1.774	1.652	- (0)	90,000 (1)	30,000 (1)	120,000 (2)
3	1.644	1.286	1.863	1.713	3,660,000 (26)	8,820,000 (48)	21,311,393 (149)	33,791,393 (223)
3.1		1.492	2.591	2.042	- (0)	60,000 (1)	40,000 (1)	100,000 (2)
3.2			2.268	2.268	- (0)	- (0)	120,000 (4)	120,000 (4)
3.25		1.647	2.289	1.861	- (0)	60,000 (2)	10,000 (1)	70,000 (3)
3.5		1.606	5.198	4.749	- (0)	70,000 (1)	220,000 (7)	290,000 (8)
3.75			1.414	1.414	- (0)	- (0)	60,000 (1)	60,000 (1)
4	1.506	1.621	1.691	1.637	160,000 (3)	270,000 (6)	350,000 (9)	780,000 (18)
4.5		1.689	1.554	1.644	- (0)	90,000 (2)	30,000 (1)	120,000 (3)
5	1.739	1.554	1.995	1.838	8,400,000 (37)	16,220,000 (57)	22,668,000 (127)	47,288,000 (221)
5.1			1.618	1.618	- (0)	- (0)	50,000 (1)	50,000 (1)

만기 (년)	이자율(%)				SRI 채권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계
6			2.620	2.620	- (0)	- (0)	20,000 (1)	20,000 (1)
7	1.827	1.691	2.132	1.918	3,350,000 (20)	5,690,000 (26)	5,570,000 (36)	14,610,000 (82)
7.3			2.289	2.289	- (0)	- (0)	50,000 (1)	50,000 (1)
8			2.480	2.480	- (0)	- (0)	100,000 (1)	100,000 (1)
10	1.856	1.821	2.431	2.073	4,380,000 (30)	6,790,000 (48)	9,195,000 (52)	20,365,000 (130)
15	1.914	1.819	2.387	2.015	1,250,000 (16)	2,290,000 (26)	2,040,000 (18)	5,580,000 (60)
20	1.811	1.818	2.384	1.997	970,000 (24)	1,470,000 (40)	1,440,000 (30)	3,880,000 (94)
30	1.763	1.894	2.427	2.331	200,000 (2)	40,000 (4)	1,550,000 (29)	1,790,000 (35)
35	3.050		2.820	2.935	122,615 (1)	- (0)	94,488 (1)	217,103 (2)
35.1			2.780	2.780	- (0)	- (0)	104,521 (1)	104,521 (1)
영구		2.895	3.159	3.063	- (0)	900,000 (4)	1,277,000 (7)	2,177,000 (11)

*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만기의 SRI 채권 발행 건수를 의미함

2) 녹색채권

□ 2019~21년 동안 3년 만기 채권의 총 발행규모가 5.6조원으로 가장 큼

○ 다음으로 5년(4조원), 10년(1.9조원) 만기 순으로 발행규모가 큼

□ 채권 수는 3년과 5년 만기 채권이 가장 많았으며(각각 46, 37건), 10년 만기 녹색채권은 17건 존재

○ 타 채권대비 만기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으며, 2021년에는 만기 20년 이상인 채권과 영구채가 처음 발행됨

□ 2021년에는 3년 만기 채권이 발행규모 및 발행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4.7조원, 37건), 다음으로 5년 만기 채권이 발행규모 및 발행 건수가 많음(3.4조원, 30건)

○ 2020년에도 3년 만기 채권이 발행규모와 발행 건수 모두 가장 높았으나(5,000억원, 4건),

2019년에는 5년 만기 채권이 발행규모가 가장 큼(4,600억원, 5건)

<표 9> 녹색채권의 만기 및 이자율 현황

만기 (년)	이자율(%)				녹색채권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			0.890	0.890	- (0)	- (0)	100,000 (1)	100,000 (1)
1.5			1.760	1.760	- (0)	- (0)	210,000 (4)	210,000 (4)
2		1.325	2.302	2.213	- (0)	60,000 (1)	729,000 (10)	789,000 (11)
2.1			1.332	1.332	- (0)	- (0)	130,000 (1)	130,000 (1)
2.2			2.423	2.423	- (0)	- (0)	50,000 (1)	50,000 (1)
2.25			1.222	1.222	- (0)	- (0)	80,000 (1)	80,000 (1)
2.5			1.365	1.365	- (0)	- (0)	80,000 (1)	80,000 (1)
3	1.685	1.476	1.861	1.809	370,000 (5)	500,000 (4)	4,697,000 (37)	5,567,000 (46)
5	1.846	1.792	2.022	1.986	460,000 (5)	210,000 (2)	3,353,000 (30)	4,023,000 (37)
7	1.923		2.138	2.088	290,000 (3)	- (0)	650,000 (10)	940,000 (13)
10	2.125	2.389	2.265	2.254	220,000 (3)	140,000 (2)	1,530,000 (12)	1,890,000 (17)
20			2.390	2.390	- (0)	- (0)	240,000 (4)	240,000 (4)
30			2.390	2.396	- (0)	- (0)	500,000 (6)	500,000 (6)
영구			3.600	3.600	- (0)	- (0)	110,000 (1)	110,000 (1)

*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만기의 녹색채권 발행 건수를 의미함

3) 사회적채권

□ 2019~21년 동안 5년 만기 채권의 발행규모가 41조원으로 가장 큼

○ 다음으로 3년(23.5조원), 2년(16.1조원), 10년(15.5조원), 7년(13.4조원) 만기 순으로 발행규모가 큼

□ 세 SRI 채권 중 만기 스펙트럼이 가장 넓으며, 만기가 5년, 3년, 10년, 2년 순으로 채권 수가 많음(각각 153, 126, 100, 95건)

○ 타 채권에 비해 만기가 긴 채권 비중이 높음(만기 10년을 초과하는 채권 비중이 23%로 SRI 채권의 경우 18%임)

□ 2021년에는 5년 만기 채권이 발행규모가 17.6조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3년 만기 채권은 13.4조원의 발행규모를 보였으며, 3년과 5년 만기 채권은 각각 72건이 발행되어 발행건수가 가장 높음

○ 2020년에도 5년 만기 채권은 발행규모와 발행 건수 모두 가장 높았으며(15.7조원, 51건), 다음으로 2년 만기 채권이 7.5조원의 발행규모와 44건의 발행실적을 보임

- 2019년에는 5년, 10년 3년 만기 채권 순으로 발행규모가 크며(각각 7.7조원, 3.5조원, 2.8조원), 발행건수는 5년, 10년, 20년 만기 순으로 나타남(30건, 26건, 24건)

<표 10> 사회적채권의 만기 및 이자율 현황

만기 (년)	이자율(%)				사회적채권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			1.112	1.112	- (0)	- (0)	5,138,700 (26)	5,138,700 (26)
1.25			1.212	1.212	- (0)	- (0)	20,000 (1)	20,000 (1)
1.4			2.011	2.011	- (0)	- (0)	75,000 (2)	75,000 (2)
1.5			1.468	1.468	- (0)	- (0)	1,180,000 (7)	1,180,000 (7)
1.6		1.059		1.059	- (0)	50,000 (1)	- (0)	50,000 (1)
1.7			2.035	2.035	- (0)	- (0)	65,000 (2)	65,000 (2)
1.9			1.223	1.223	- (0)	- (0)	60,000 (1)	60,000 (1)
2		1.146	1.467	1.318	- (0)	7,470,100 (44)	8,652,852 (51)	16,122,952 (95)
2.25			2.162	2.162	- (0)	- (0)	20,000 (1)	20,000 (1)
2.4			2.319	2.319	- (0)	- (0)	100,000 (1)	100,000 (1)
2.5	1.490		1.747	1.695	200,000 (1)	- (0)	170,000 (4)	370,000 (5)
2.8		1.324		1.324	- (0)	50,000 (1)	- (0)	50,000 (1)
3	1.626	1.238	1.860	1.652	2,890,000 (19)	7,220,000 (35)	13,415,393 (72)	23,525,393 (126)
3.1		1.492		1.492	- (0)	60,000 (1)	- (0)	60,000 (1)
3.2			2.193	2.193	- (0)	- (0)	50,000 (2)	50,000 (2)

만기 (년)	이자율(%)				사회적채권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25		1.647	2.289	1.861	- (0)	60,000 (2)	10,000 (1)	70,000 (3)
3.5			24.000	24.000	- (0)	- (0)	70,000 (1)	70,000 (1)
3.75			1.414	1.414	- (0)	- (0)	60,000 (1)	60,000 (1)
4	1.506	1.629	1.438	1.535	160,000 (3)	110,000 (3)	90,000 (2)	360,000 (8)
5	1.714	1.544	1.949	1.768	7,700,000 (30)	15,730,000 (51)	17,630,000 (72)	41,060,000 (153)
5.1			1.618	1.618	- (0)	- (0)	50,000 (1)	50,000 (1)
6			2.620	2.620	- (0)	- (0)	20,000 (1)	20,000 (1)
7	1.809	1.691	2.134	1.872	3,060,000 (17)	5,690,000 (26)	4,650,000 (22)	13,400,000 (65)
8			2.480	2.480	- (0)	- (0)	100,000 (1)	100,000 (1)
10	1.831	1.769	2.372	1.966	3,510,000 (26)	6,550,000 (44)	5,470,000 (30)	15,530,000 (100)
15	1.914	1.819	2.387	2.015	1,250,000 (16)	2,290,000 (26)	2,040,000 (18)	5,580,000 (60)
20	1.811	1.818	2.374	1.972	970,000 (24)	1,470,000 (40)	1,150,000 (25)	3,590,000 (89)
30	1.817	1.894	2.369	2.274	140,000 (1)	40,000 (4)	490,000 (21)	670,000 (26)
35	3.050		2.820	2.935	122,615 (1)	- (0)	94,488 (1)	217,103 (2)
35.1			2.780	2.780	- (0)	- (0)	104,521 (1)	104,521 (1)
영구			3.140	3.140	- (0)	- (0)	867,000 (4)	867,000 (4)

*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만기의 사회적채권 발행 건수를 의미함

4) 지속가능채권

2019~21년 동안 3년 만기 채권의 발행규모가 4.7조원으로 가장 큼

○ 다음으로 10년(2.9조원), 5년(2.2조원), 영구(1.2조원) 만기 순으로 발행규모가 큼

3년 만기 지속가능채권의 수가 51개로 가장 많음

○ 5년, 2년 만기 순으로 채권 수가 많음(각각 31, 29개 채권)

○ 녹색채권과 유사하게 만기 10년 초과 채권의 발행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채권

에 비해 비중은 낮음

- 2021년에는 발행규모에서는 3년, 10년, 5년 만기 채권 순으로 컸으며(각각 3.2조원, 2.2조원, 1.7조원), 발행 건수에서는 3년, 5년, 2년 순으로 많았음(각각 40건, 25건, 22건)
- 2020년에는 발행규모에서는 3년, 영구, 2년 만기 채권 순으로 컸으며(각각 1.1조원, 9,000억원, 7,200억원), 발행 건수에서는 3년, 2년, 5년·영구 만기 채권 순으로 많았음(각각 9건, 7건, 4건)

<표 11> 지속가능채권의 만기 및 이자율 현황

만기 (년)	이자율(%)				지속가능채권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			1.422	1.422	- (0)	- (0)	660,000 (8)	660,000 (8)
1.1			2.165	2.165	- (0)	- (0)	30,000 (2)	30,000 (2)
1.2			1.850	1.850	- (0)	- (0)	50,000 (2)	50,000 (2)
1.5		1.225	1.788	1.745	- (0)	60,000 (1)	610,000 (12)	670,000 (13)
1.7			2.454	2.454	- (0)	- (0)	30,000 (1)	30,000 (1)
1.75			2.806	2.806	- (0)	- (0)	60,000 (1)	60,000 (1)
1.9			2.831	2.831	- (0)	- (0)	110,000 (1)	110,000 (1)
2		1.211	1.953	1.774	- (0)	720,000 (7)	1,030,000 (22)	1,750,000 (29)
2.1			1.634	1.634	- (0)	- (0)	60,000 (1)	60,000 (1)
2.2			1.944	1.944	- (0)	- (0)	90,000 (3)	90,000 (3)
2.25			1.786	1.786	- (0)	- (0)	90,000 (2)	90,000 (2)
2.4			1.734	1.734	- (0)	- (0)	50,000 (1)	50,000 (1)
2.5		1.429	1.898	1.804	- (0)	120,000 (3)	590,000 (12)	710,000 (15)
2.6			1.588	1.588	- (0)	- (0)	100,000 (2)	100,000 (2)
2.9		1.529	1.774	1.652	- (0)	90,000 (1)	30,000 (1)	120,000 (2)
3	1.706	1.387	1.871	1.779	400,000 (2)	1,100,000 (9)	3,199,000 (40)	4,699,000 (51)
3.1			2.591	2.591	- (0)	- (0)	40,000 (1)	40,000 (1)
3.2			2.344	2.344	- (0)	- (0)	70,000 (2)	70,000 (2)

만기 (년)	이자율(%)				지속가능채권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5		1.606	2.064	1.998	- (0)	70,000 (1)	150,000 (6)	220,000 (7)
4		1.613	1.763	1.718	- (0)	160,000 (3)	260,000 (7)	420,000 (10)
4.5		1.689	1.554	1.644	- (0)	90,000 (2)	30,000 (1)	120,000 (3)
5	1.843	1.570	2.095	2.011	240,000 (2)	280,000 (4)	1,685,000 (25)	2,205,000 (31)
7			2.111	2.111	- (0)	- (0)	270,000 (4)	270,000 (4)
7.3			2.289	2.289	- (0)	- (0)	50,000 (1)	50,000 (1)
10	1.700	2.410	2.809	2.662	650,000 (1)	100,000 (2)	2,195,000 (10)	2,945,000 (13)
20			2.604	2.604	- (0)	- (0)	50,000 (1)	50,000 (1)
30	1.709		3.155	2.673	60,000 (1)	- (0)	560,000 (2)	620,000 (3)
영구		2.895	2.975	2.922	- (0)	900,000 (4)	300,000 (2)	1,200,000 (6)

*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만기의 지속가능채권 발행 건수를 의미함

3. 신용등급

□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세그먼트에 등록된 SRI 채권의 증권신고서 내 신용등급 정보를 조사하여 분석함

1) SRI 채권

□ SRI 채권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C 등급까지 분포

○ AAA 신용등급의 SRI 채권 수가 가장 많고, 발행규모도 가장 큼(126.6조원)

□ SRI 채권 중 신용등급 A 이상의 발행자 비중은 98.8%임

○ C 등급 채권의 경우 후순위 채권으로, SRI 채권은 대부분 선순위 채권인 관계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

<표 12> SRI 채권 신용등급 현황

신용등급	채권 수				발행규모(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AAA	124	253	341	718	19,802,615	46,050,100	60,790,954	126,643,669
AA	20	46	242	308	2,150,000	3,630,000	20,327,000	26,107,000
A	0	1	48	49	-	110,000	3,643,000	3,753,000
BBB	0	0	12	12	-	-	740,000	740,000
C	0	0	1	1	-	-	70,000	70,000

2) 녹색채권

□ 녹색채권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BBB 등급까지 분포

○ AA 등급의 녹색채권 발행이 가장 많고, 총 규모도 가장 큼(8.6조원)

- A 등급 이상의 비중은 채권 수 기준 95%, 발행규모 기준 96% 수준

- C 등급은 없음

<표 13> 녹색채권 신용등급 현황

신용등급	채권 수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AAA	0	1	34	35	-	200,000	3,380,000	3,580,000
AA	16	7	59	82	1,340,000	600,000	6,620,000	8,560,000
A	0	1	19	20	-	110,000	1,874,000	1,984,000
BBB	0	0	7	7	-	-	585,000	585,000

3) 사회적채권

사회적채권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C 등급까지 분포¹¹⁾

○ AAA 신용등급의 SRI 채권이 가장 많고, 총 규모도 가장 큼(119.9조원)

AAA 신용등급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1년까지 총 548개 채권 발행 (96.8조원 규모)

○ C 등급 채권의 경우 '중진공2021제1차스케일업유동화전문유한회사 제3회 후순위 무보증 사채'임

<표 14> 사회적채권 신용등급 현황

신용등급	채권 수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AAA	119	243	294	656	19,102,615	44,690,100	56,080,954	119,873,669
AA	3	11	51	65	160,000	500,000	4,367,000	5,027,000
A	0	0	3	3	-	-	110,000	110,000
BBB	0	0	3	3	-	-	35,000	35,000
C	0	0	1	1	-	-	70,000	70,000

4) 지속가능채권

11) 사회적채권 발행 기관 중 한국장학재단은 비영리 재단으로 신용등급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지속가능채권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BBB 등급까지 분포

○ 녹색채권과 유사하게 AA 등급의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가장 많고, 발행규모도 가장 큼
(12.5조원)

- A 등급 이상의 비중은 채권 수 기준 99%, 발행규모 기준 99.3%
- C 등급은 없음

<표 15> 지속가능채권 신용등급 현황

신용등급	채권 수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AAA	5	9	13	27	700,000	1,160,000	1,330,000	3,190,000
AA	1	28	132	161	650,000	2,530,000	9,340,000	12,520,000
A	0	0	26	26	-	-	1,659,000	1,659,000
BBB	0	0	2	2	-	-	120,000	120,000

4. 준거원칙

- 세 채권 모두 ICMA(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녹색채권원칙, 사회적채권원칙,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을 준거하여 발행
- CBI(Climate Bonds Initiative)의 기후채권기준(Climate Bonds Standard)을 준거하는 녹색채권은 아직 시장에 없음
 - ICMA의 녹색채권원칙보다 CBI의 기후채권기준이 더 엄격하여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21년 발행 녹색채권 중 73%가 2020년 12월에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을 병행 준거하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을 단독으로 준거하는 녹색채권은 전무한 실정임
- ICMA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준거원칙으로 삼는 이유는 ICMA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녹색채권가이드라인 또한 ICMA의 녹색채권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16> 발행된 SRI 채권의 준거원칙

구분	기본 준거원칙	비고
녹색채권	ICMA 녹색채권원칙 (Green Bond Principles(GBP))	녹색채권가이드라인 병행준거 73% (119건 중 87건)
사회적채권	ICMA 사회적채권원칙 (Social Bond Principles(SBP))	
지속가능채권	ICMA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 (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SBG))	

<표 17> ICMA 녹색채권원칙(GBP)의 주요 내용

□ 녹색채권원칙

- ICMA는 2014년 녹색채권원칙 발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2021년 원칙 업데이트)
- 네 핵심요소로 구성
 - 조달자금(proceed)의 집행 : 아래 표의 녹색 프로젝트 유형에 투자

<녹색채권원칙 프로젝트 유형들과 환경 목표 맵핑>

녹색채권원칙 프로젝트 유형	환경 목표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대응	생 다양성	천연자원 보호	오염 방지 및 통제
재생에너지	●●●			●	●
에너지 효율성	●●●				●
오염 방지 및 통제				●	●●●
생 천연 자원 및 토양 사용의 환경 지속가능 관리	●	●●	●●●	●●●	
육상 및 해상 생 다양성 보호		●	●●●	●●●	
청정 운송	●●●			●	●●●
지속가능한 용수 및 폐수 관리		●●	●●	●●	●●●
기후변화 대응		●●●			
환경 효율적 및(또는) 순환경제 대응 제품, 생산기술 및 공정	●●		●	●●●	●
녹색 건물	●●●	●		●●●	●

목표 공헌도 : 주요(1차) ●●●, 2차 ●●, 3차 ●

출처 : ICMA, "Green Project Mapping", 20216.

-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 . 녹색채권 발행기관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목표, 발행기관의 녹색 프로젝트 유형 적합성 결정 절차, 관련된 적격성 기준에 대하여 투자자들과 소통해야 함
- . 발행기관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외부평가 권고

- 조달자금의 관리 : 발행기관의 조달자금 관리는 감사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내부 추적 방법과 녹색채권 조달자금의 할당 확인 권고

- 보고 : 연차보고서에 녹색채권 조달자금 집행 프로젝트 목록, 해당 프로젝트의 간략한 설명 및 투입 규모, 그 기대 영향 기재

- . 가능하다면 정량 성과 측정치(에너지 용량, 발전량, 저감 또는 회피된 온실가스 배출량, 청정 에너지를 제공받은 인구 수, 용수 감소량, 요구 차량 감소 수 등)와 정성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정량 측정치 결정에서 사용된 주요 방법론 및(또는) 가정들을 공시하는 게 바람직

○ 외부 검토

- 녹색채권 발행기관은 하나 또는 복수의 외부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채권 또는 채권 프로그램과 녹색채권원칙의 네 핵심요소들간 연계성 확인 권고

<표 18> CBI 기후채권기준(CBS)의 주요내용

□ 기후채권기준

- CBI는 2010년 12월에 기후채권기준 1.0 발표, 뒤이어 2015년에 2.0, 2017년에 기후채권기준 2.1을 발표하였고, 2019년 12월에 기후채권기준 3.0 발표
- 채권, 여신, 기타 대출상품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발행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 정함
- 발행 전 요구사항
 - 조달자금의 집행 : 채권과 연관이 있는 적격 프로젝트 및 자산의 목록 작성
 - 프로젝트 및 자산의 평가 및 선정 절차 : 프로젝트 및 자산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의사결정 절차 문서화
 - 조달자금의 관리 : 순 조달자금의 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체계, 정책 및 절차의 문서화 및 공개
 - 발행 전 보고 : 발행 전 또는 발행 시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마련, 공개
- 발행 후 요구사항
 - 조달자금의 집행 : 모든 프로젝트 및 자산은 채권의 문서화된 목표와 섹터 적격성 기준 충족
 - . 채권 발행 후 24개월 내에 순 조달자금을 프로젝트 및 자산에 집행하거나 순 조달자금의 프로젝트 및 자산으로의 집행에 대한 시간계획 추정안을 발행 후 보고에 포함하여 공시
 - 프로젝트 및 자산의 평가 및 선정 절차 : 프로젝트 및 자산의 적격성 유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의사결정 절차 문서화
 - 조달자금의 관리 : 프로젝트 및 자산으로의 순 조달자금 집행에 대해 관리하고 설명하는 별도의 절차 유지
 - 보고 : 최소 매년 업데이트 보고서 작성 및 공개
 - . 업데이트 보고서는 할당 보고, 적격성 보고, 영향 보고로 구성
 - . 할당 보고 : 기후채권기준 또는 다른 준거 기준과의 부합성, 채권의 기후관련 목표 설명, 순 조달자금이 집행 또는 재집행된 프로젝트 및 자산 목록, 프로젝트 및 자산에 대한 할당 규모, 투자 및 재투자에 사용된 순 조달자금의 비율 추정, 재투자된 프로젝트 및 자산 내역 등 보고
 - . 적격성 보고 : 프로젝트 및 자산의 세부 적격성 요구사항 충족 확인, 프로젝트 및 자산의 환경성 특성 또는 성과에 대한 정보 보고
 - . 영향 보고 : 프로젝트 및 자산의 실제/예상 성과 또는 영향 보고

5. 외부평가

1) 발행 전 외부평가

□ SRI 채권과 일반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체계/Framework의 마련과 외부평가임

○ 외부평가는 제3자가 관리체계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채권 및 그 관리체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그림 8> 원화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절차

절차	대상기관	일정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여부 결정	발행사	D-40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체계 수립	발행사	D-30~5
외부평가 업무 수행	외부평가기관	D-30~5
제안요청서(RFP) 발송	발행사→금융투자회사	D-17~20
대표주관계약 체결 및 신고	주간사 및 금융투자협회	D-14
신용등급 평가	신용평가사	D-14~10
기업실사	-	D-13~6
이사회결의	발행사	D-1~2
외부평가 업무 완료 (평가보고서 발급)	외부평가기관	D-1
증권신고서 제출 * 외부평가 보고서 첨부 제출	금융위원회	D
수요예측	금융투자협회	D+1~2
채권상장신청	한국거래소	D+7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금융위원회	D+10
채권등록발행	한국예탁결제원	D+10
청약 및 납입	-	D+10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금융위원회	D+11
채권상장	한국거래소	D+11~
사후보고(자금사용 현황 및 환경적·사회적효과 등)	발행사	D+365~

출처 :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세그먼트 홈페이지

○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에서는 발행 전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국내 SRI 채권 외부평가에는 크게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은 관리체계와 준거원칙과의 부합성에 대한 제2자 의견(Second Party Opinion)의 일종인

확인(Assuran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용평가사는 부합성에 대한 평가(Scoring/Rat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19> ICMA의 외부검토(External Review) 유형 분류

구분	범위
제2자 의견 (Second party opinion)	녹색채권원칙과의 부합성 확인 및 의견 제시
검증(verification)	제3자 검증을 통해 조달자금 집행의 기후채권기준과 섹터 세부기준 준수 확인
인증(Certification)	관련 기준 및 라벨에 대한 채권 인증
평가(Scoring/Rating)	관리체계, 자금 사용, 프로젝트 적격성 등에 대한 채권 평가(점수/등급)

출처 : ICMA, "Guidelines for Green, Social, Sustainability and Sustainability-Linked Bonds External Review". 2021.2

(1) SRI 채권

- 해외 ESG 평가기관인 Sustainalytics가 가장 많은 외부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채권 관리체계/framework)에 대한 제2자 의견(Second Party Opinion)으로 관리체계의 변경이 없어 한번 받은 외부평가보고서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
- 국내 외부평가기관 중 회계법인은 2021년까지 349건, 약 32조원 규모의 SRI 채권을 외부 평가하였고, 신용평가사는 231건, 약29조원 규모의 SRI 채권을 외부평가한 것으로 조사
 - 회계법인 중 Deloitte 안진이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209건), 신평사 중에서는 한국신용평가가 가장 많음(147건)
 - Deloitte 안진의 경우 채권 발행자가 관리체계 변경 없이 채권을 추가 발행할 경우 Sustainalytics처럼 과거 제2자 의견 외부평가 보고서를 그대로 사용
 - 신평사 중 한국신용평가는 2020년부터 SRI 채권 외부검토를 하고 있으며,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2021년부터 외부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2021년 외부평가 실적을 보면, 건수는 회계법인이 234건으로 225건의 신용평가사보다 많으나 발행규모에서는 신용평가사는 28.7조원으로 회계법인의 20.6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 누적 발행규모에서는 국내 외부평가기관 중 한국신용평가가 가장 크고, Deloitte 안진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한국신용평가는 누적 발행규모 19.6조원, 2021년에만 약19.4조원 규모의 SRI 채권을 외부평가하였음
- Deloitte 안진은 누적 발행규모 18.5조원, 2021년에 14.2조원 규모의 SRI 채권에 대하여 외부평가 수행
- 한국기업평가는 2021년 5.4조원 규모의 SRI 채권에 대하여 외부평가 수행

<표 20> SRI 채권 발행 전 외부평가 현황

외부평가기관		채권 수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18년 포함)	2020년	2021년	계	2019년 (2018년 포함)	2020년	2021년	계
회계법인	Deloitte 안진	0	42	167	209	-	4,280,000	14,187,000	18,467,000
	KPMG 삼정	14	0	32	46	2,130,000	-	3,130,000	5,260,000
	EY 한영	11	6	11	28	820,000	610,000	950,000	2,380,000
	PWC 삼일	16	26	24	66	740,000	2,820,000	2,330,000	5,890,000
	소계	41	74	234	349	3,690,000	7,710,000	20,597,000	31,997,000
신용평가사	한국신용평가	0	6	141	147	-	260,000	19,357,545	19,617,545
	한국기업평가	0	0	55	55	-	-	5,414,000	5,414,000
	나이스신용평가	0	0	30	30	-	-	3,950,000	3,890,000
	소계	0	6	226	232	-	260,000	28,721,545	28,981,545
해외기관	Sustainalytics	119	244	199	562	19,002,615	43,420,100	37,052,409	99,475,124
	S&P	0	0	1	1	-	-	100,000	100,000
	CICERO	1	0	4	5	100,000	-	280,000	380,000
총계		161	324	664	1,149	22,792,615	51,390,100	86,750,954	160,933,669

- 외부평가 유형별로 보면, 국내에는 제2자 의견(Second Party Opinion, SPO)¹²⁾과 평가(Scoring/Rating) 방식만이 활용되고 있으며, 검토의견이 누적 채권 수 기준 약 80% 차지

12) 확인(Assurance) 포함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검토의견은 회계법인과 ESG 평가기관(Sustainalytics, CICERO)이 수행하였음
- 외부평가 유형 중 평가등급의 비중은 20%로 신용평가사들이 수행함

(2) 녹색채권

- 국내 외부평가기관 중 회계법인은 2021년까지 53건, 약 5.5조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외부 평가하였고, 신용평가사는 86건, 8.9조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외부평가한 것으로 조사됨
- 신용평가사들은 2021년부터 녹색채권 외부평가를 해오고 있어 87건, 약9조원 모두 2021년에 수행한 실적인 반면에 회계법인의 2021년 실적은 28건, 3.2조원으로 SRI 채권 중 특히 녹색채권에서 실적이 두드러지며, 녹색채권 외부평가는 2021년부터 신용평가사들이 주도적으로 수행 중
 - 한국기업평가가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34건), 한국신용평가(31건), Deloitte 안진과 나이스신용평가(22건)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누적 발행규모에서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큼(각각 3.14조원, 3.15조원)
- 회계법인 중에서는 Deloitte 안진이 가장 큰 2.5조원의 누적 발행규모를 보임
- 해외기관으로 CICERO가 유일하게 녹색채권 외부평가를 수행함
 - 2018년에 한국남부발전이 발행한 1,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에 대해 CICERO에서 외부평가 수행
- 녹색채권에서는 외부평가 유형 중 평가(Scoring/Rating) 방식의 비중이 누적 채권 수 기준 60%로 검토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 녹색채권 발행 전 외부평가 현황

외부평가기관		채권 수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18년 포함)	2020년	2021년	계	2019년 (2018년 포함)	2020년	2021년	계
회계 법인	Deloitte 안진	0	4	22	26	-	400,000	2,110,000	2,510,000
	KPMG 삼정	11	0	2	13	1,080,000	-	660,000	1,740,000
	EY 한영	5	5	4	14	260,000	510,000	450,000	1,220,000
	소계	16	9	28	53	1,340,000	910,000	3,220,000	5,470,000
신용 평가 사	한국신용평가	0	0	31	31	-	-	3,139,000	3,139,000
	한국기업평가	0	0	34	34	-	-	3,150,000	3,150,000
	나이스신용평가	0	0	22	22	-	-	2,670,000	2,670,000
	소계	0	0	87	87	-	-	8,959,000	8,959,000
해외	CICERO	1	0	4	5	100,000	-	280,000	380,000
계		17	9	119	145	1,340,000	910,000	12,459,000	14,809,000

(3) 사회적채권

- Sustainalytics가 가장 많은 외부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채권 관리체계에 대한 Assurance로 관리체계의 변경이 없어 한번 받은 외부평가보고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임
- 국내 외부평가기관 중 회계법인은 2021년까지 169건, 약 17.6조원 규모의 사회적채권을 외부평가하였고, 신용평가사는 74건, 15조원 규모의 사회적채권을 외부평가한 것으로 조사됨
 - Deloitte 안진과 PWC 삼일이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각각 78건, 66건), 신평가 중에서는 한국신용평가가 가장 많음(62건)
 - 신평가 중 한국신용평가는 2020년부터 사회적채권 외부평가를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2021년부터 외부평가서비스 제공 중
 - 회계법인의 외부평가 건수는 신용평가사의 두배가 넘으나 누적 발행규모에서는 15%의 차이만 존재

- 특히 2021년 외부평가 실적을 보면, 건수는 회계법인이 110건으로 70건의 신용평가사보다 많으나 발행규모에서는 신용평가사는 14.9조원으로 회계법인의 12조원을 상회
- 누적 발행규모에서는 국내 외부평가기관 중 한국신용평가가 가장 크고, Deloitte 안진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한국신용평가는 누적 발행규모 13.3조원, 2021년에만 13.1조원 규모의 사회적채권을 외부평가하였음
- Deloitte 안진은 누적 발행규모 9.5조원, 2021년에 8.1조원 규모의 사회적채권에 대하여 외부평가 수행
- PWC 삼일은 누적 발행규모 5.9조원, 2021년 2.3조원 규모의 사회적채권에 대하여 외부평가 수행
- 사회적채권에서는 외부평가 유형 중 제2자 의견이 누적 채권 수 기준 90% 차지
- 가장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2자 의견 방식의 외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

<표 22> 사회적채권 발행 전 외부평가 현황

외부평가기관	채권 수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회계법인	Deloitte 안진	0	10	68	78	-	1,350,000	8,137,000	9,487,000
	KPMG 삼정	1	0	18	19	100,000	-	1,530,000	1,630,000
	EY 한영	6	0	0	6	560,000	-	-	560,000
	PWC 삼일	16	26	24	66	740,000	2,820,000	2,330,000	5,890,000
	소계	23	36	110	169	1,400,000	4,170,000	11,997,000	17,567,000
신용평가사	한국신용평가	0	4	58	62	-	150,000	13,128,545	13,278,545
	한국기업평가	0	0	5	5	-	-	480,000	480,000
	나이스신용평가	0	0	7	7	-	-	1,250,000	1,250,000
	소계	0	4	70	74	-	150,000	14,858,545	15,008,545
해외	Sustainalytics	115	238	191	544	18,602,615	42,470,100	34,887,409	95,960,124
	S&P	0	0	1	1	-	-	100,000	100,000
총계	138	278	372	788	20,002,615	46,790,100	61,842,954	128,635,669	

(4) 지속가능채권

- 국내 외부평가기관 중 회계법인은 2021년까지 127건, 약 9조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외부평가하였고, 신용평가사는 71건, 5조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외부평가
- 회계법인 중 Deloitte 안진이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105건), 신평사 중에서는 한국신용평가가 가장 많음(54건)
 - 한국신용평가는 2020년부터 SRI 채권 외부평가서비스 제공
 - 2021년 외부평가 실적을 보면, 건수는 회계법인이 96건으로 69건의 신용평가사보다 훨씬 많으나 발행규모에서는 회계법인 5.4조원, 신용평가사 4.9조원으로 건수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누적 발행규모에서는 국내 외부평가기관 중 Deloitte 안진이 가장 크고, 한국신용평가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Deloitte 안진은 누적 발행규모 6.5조원, 2021년에 3.9조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에 대하여 외부평가 수행
- 한국신용평가는 누적 발행규모 3.2조원, 2021년에만 3.1조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 외부평가 수행
- 한국기업평가는 2021년 1.8조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 외부평가 수행
- 지속가능채권에서는 외부평가 유형 중 제2자 의견의 비중이 누적 채권 수 기준 67%로 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 지속가능채권 발행 전 외부평가 현황

외부평가기관		채권 수				발행 규모(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회계 법인	Deloitte 안진	0	28	77	105	-	2,530,000	3,940,000	6,470,000
	KPMG 삼정	2	0	12	14	950,000	-	940,000	1,890,000
	EY 한영	0	1	7	8	-	100,000	500,000	600,000
	소계	2	29	96	127	950,000	2,630,000	5,380,000	8,960,000
신용 평가 사	한국신용평가	0	2	52	54	-	110,000	3,090,000	3,200,000
	한국기업평가	0	0	16	16	-	-	1,784,000	1,784,000
	나이스신용평가	0	0	1	1	-	-	30,000	30,000
	소계	0	2	69	71	-	110,000	4,904,000	5,014,000
해외	Sustainalytics	4	6	8	18	400,000	950,000	2,165,000	3,515,000
총계		6	37	173	216	1,350,000	3,690,000	12,449,000	17,489,000

2) 발행 후 외부평가

-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에서는 발행 후 보고는 의무화하고 있으나 발행 후 보고서에 대한 외부평가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현재 ICMA 등이 정하고 있는 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도 발행 후 보고서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 한국거래소의 운영지침에서는 채권 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발행 후 보고서, 즉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 제출을 하도록 함(제8조 제1항)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 819건의 발행 후 보고서가 있었으며, 이 중에서 25건이 외부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발행 후 외부평가 비율은 3.1% 수준
- 세 채권 중 녹색채권의 발행 후 외부평가비율이 9.4%로 가장 높으며, 지속가능채권이 8.7%, 사회적채권은 1.4%임

<표 24> 발행 후 외부평가 현황

구분	보고 (A)	외부평가 (B)	외부평가 비율 (=B/A*100(%))
녹색채권	53	5	9.4%
사회적채권	639	9	1.4%
지속가능채권	127	11	8.7%
계	819	25	3.1%

-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행 후 외부평가를 통해 발행자가 발행 전의 계획에 맞추어 얼마나 충실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지를 외부기관이 점검하는 것이 중요
- 또한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서 검증하는 것이 그린워싱 방지에 도움

<표 25> 외부평가기관별 발행 후 외부평가 현황

외부평가기관명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Deloitte 안진	1	9	10
한국기업평가	2	0	1
EY 한영	2	0	0
계	5	9	11

- 사회적채권은 모두 Deloitte 안진에서 외부평가 수행
- 한국기업평가에서 실시한 발행 전/후 외부평가 결과를 살펴본 결과 발행 전후 모두 1등급인 것으로 조사

6. 관리체계

□ 관리체계(Framework)는 그 내용에 따라 범용과 전용으로 구분

- 범용 관리체계는 발행기관이 발행하고자 하는 채권의 종류를 모두 열거하고 해당 채권 별로 추상적인 프로젝트 목록을 열거하는 방식의 관리체계
- 전용 관리체계는 발행기관이 발행하고자 하는 특정의 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열거하는 방식의 관리체계로 발행하고자 하는 채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 관리체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관리체계를 마련

□ SRI 채권의 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전체 발행 채권의 43%는 범용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고 나머지 57%는 전용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용 관리체계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적채권에서 채권의 발행목적이 명확한 한국주택금융공사(548건의 채권 발행)와 한국장학재단(58건의 채권 발행)이 대부분 차지
- 이 두 경우를 제외하면, 범용 관리체계가 시장 내에서 더 선호

<표 26> 범용 및 전용 관리체계 현황

구분	범용 관리체계	전용 관리체계
녹색채권	125	18
사회적채권	157	631
지속가능채권	213	3
계	495	652

- 전용 관리체계의 비중을 살펴보면, 녹색채권의 경우 발행 채권의 13%, 지속가능채권은 1%에 불과한 실정이며, 사회적채권은 80%임

<표 27> 전용 관리체계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녹색채권	8 (50%)	1 (11%)	9 (8%)	18 (13%)
사회적채권	137 (99%)	260 (94%)	234 (63%)	631 (80%)
지속가능채권	0 (-)	0 (-)	3 (2%)	3 (1%)
계	145 (91%)	261 (81%)	246 (37%)	652 (57%)

7. 발행 목적 확인

1) 확인 경로

- 관리체계, 발행 전 외부평가 보고서, 발행 후 보고를 직접 검토하여 발행 목적을 조사 및 확인함
- 1,149건의 발행 SRI 채권 중 1,026건은 발행목적에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으나, 122건은 포괄적인 발행목적만 확인 가능했음
- 발행목적 상세확인: 관리체계에서 652건, 발행 전 외부평가 보고서에서 249건, 사후보고서에서 125건이 가능했음

<표 28> 발행목적 확인경로

구분	총계	포괄적 확인*	상세 확인			
			소계	관리체계	외부평가	사후보고
녹색채권	145	20	124	18	86	20
사회적채권	788	59	729	631	59	39
지속가능채권	216	43	173	3	104	66
계	1,149	122	1,026	652	249	125

* 포괄적 확인은 범용 관리체계에서 대상 프로젝트 목록을 확인한 것을 의미함

- 1,149건 중 관리체계와 발행 전 외부평가 보고서로 발행목적에 확인할 수 없는 채권은 총 246건(21%)임
- 관리체계에는 발행 목적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행 전 외부평가보고서에서 구체화하지 않는 것은 외부평가보고서의 품질에 대한 의문 발생
 -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제2자 의견 방식의 외부검토가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공통의 문제이며, 2021년 7월에 공개된 EU 녹색채권규정(안)에서는 발행사로 하여금 발행채권에 대한 팩트시트(Factsheet)를 작성하여 외부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

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관리체계에 발행 목적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행 전 외부평가보고서에 기재된 경우는 발행 전 외부평가의 필요성 재확인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용 관리체계의 경우는 발행 전 외부평가 보고서 및 발행 후 보고 모두에서 발행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며(11건), 범용 관리체계의 경우는 발행 전 외부평가 보고서 및 발행 후 보고에서 발행 목적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함(19건)

<표 29> 발행목적 확인 상세 현황

구분	OX	XO	OO	XX	XXO	XOO	OXO	OOO	XXX	OXX	XOX
녹색채권	2	86	16	39	20	2	22	11	0	0	0
사회적채권	624	59	7	98	39	17	8	0	0	0	0
지속가능채권	3	104	0	109	66	0	64	0	1	0	0
계	629	249	23	246	125	19	94	11	1	0	0

<발행 목적 기재 대상에 따라 구분>

INDEX	관리체계	발행 전 평가	발행 후 보고	INDEX	관리체계	발행 전 평가	발행 후 보고
OX	○	X		OXO	○	X	○
XO	X	○		OOO	○	○	○
OO	○	○		XXX	X	X	X
XX	X	X		OXX	○	X	X
XXO	X	X	○	XOX	X	○	X
XOO	X	○	○				

2) 발행 목적 조사 결과

- 하나의 채권에 여러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발행 목적별 채권 수의 비중 산정
- SRI 채권 발행 목적 중 취약계층 주택 지원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사회적채권 영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13%, 친환경 운송수단이 12%, 취약계층 금융지원이 12%로 나타나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및 취약계층을 위한 채권 발행이 많았고, 아울러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적극적임을 알 수 있음

- 친환경 운송 수단에서는 2차 전지를 포함하여 친환경 자동차 금융지원,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도입 등을 포함
- 녹색채권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이 41%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이 30% 차지
- CBI(2021)에 따르면, 채권자금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운송 순으로 나타났으며¹³⁾,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 에너지, 친환경 건축 순이었음
- 사회적채권에서는 취약계층 주택 지원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사회적채권 영향
- 지속가능채권은 친환경 운송수단의 비중이 23%, 취약계층 금융지원이 18%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 채권 특성에 따라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30> SRI 채권의 주요 발행 목적

구분	주요 발행 목적
녹색채권	1. 친환경 운송수단(41%) 2. 친환경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개선(30%) 3. 오염 방지 및 관리(12%) 4. 친환경 건축(7%) 5. 폐수 및 폐기물 (6%)
사회적채권	1. 취약계층 주택 지원(72%)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14%) 3. 취약계층 금융지원(10%)
지속가능채권	1. 친환경 운송수단(23%) 2. 취약계층 금융지원(18%)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15%) 4. 친환경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개선(13%) 5. 오염 방지 및 관리(9%)
SRI 채권	1. 취약계층 주택 지원(42%)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13%) 3. 친환경 운송수단(12%) 4. 취약계층 금융지원(12%) 5. 친환경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개선(8%)

13) Climate Bonds Initiative, "SUSTAINABLE DEBT : GLOBAL STATE OF THE MARKET 2020", 2021.4.

8. SRI 채권 주관 및 인수 실적

1) 주관 실적

- 2021년 SRI 채권 발행 주관 실적을 살펴보면,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전체 주관실적의 약 48% 차지(공동 주관의 경우도 1건으로 간주)
- 한국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의 주관사 인수실적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시스템에서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증권신고서를 검색하여 데이터 수집
- KB증권이 가장 많은 SRI 채권 발행 주관, 20% 차지

<표 31> 2021년 SRI 채권 주관 실적

주관사	실적	비중	주관사	실적	비중
KB증권	157	20.0%	부국증권	18	2.3%
한국투자증권	117	14.9%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8	2.3%
NH투자증권	104	13.2%	메리츠증권	15	1.9%
교보증권	40	5.1%	DB금융투자	12	1.5%
신한금융투자	37	4.7%	하이투자증권	10	1.3%
미래에셋증권	34	4.3%	유진투자증권	6	0.8%
키움증권	34	4.3%	BNK투자증권	3	0.4%
SK증권	31	3.9%	KTB투자증권	3	0.4%
유안타증권	26	3.3%	하나금융투자	3	0.4%
한양증권	25	3.2%	신영증권	2	0.3%
IBK투자증권	23	2.9%	한화투자증권	2	0.3%
삼성증권	21	2.7%	한국산업은행	2	0.3%
현대차투자증권	21	2.7%	NICE신용평가	1	0.1%
우리종합금융	20	2.5%			

* 증권신고서 미공시 SRI 채권은 제외

- 2021년 녹색채권 발행 주관 실적을 보면,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전체 실적의 63% 차지

<표 32> 2021년 녹색채권 주관 실적

주관사명	채권 수	비중	주관사명	채권 수	비중
KB증권	66	27%	BNK투자증권	3	1%
NH투자증권	52	21%	하나금융투자	2	1%
한국투자증권	37	15%	한화투자증권	2	1%
미래에셋증권	17	7%	하이투자증권	2	1%
삼성증권	12	5%	신영증권	2	1%
교보증권	12	5%	한양증권	2	1%
SK증권	11	4%	IBK투자증권	1	0%
키움증권	11	4%	유진투자증권	1	0%
신한금융투자	6	2%	NICE신용평가	1	0%
DB금융투자	6	2%	현대차투자증권	1	0%

○ 2021년 사회적채권 발행 주관 실적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됨(전체 실적의 30% 차지)

<표 33> 2021년 사회적채권 주관 실적

주관사명	채권 수	비중	주관사명	채권 수	비중
한국투자증권	48	16%	신한금융투자	16	5%
KB증권	41	14%	메리츠종금증권	15	5%
유안타증권	23	8%	NH투자증권	10	3%
교보증권	22	7%	키움증권	7	2%
IBK투자증권	22	7%	하이투자증권	7	2%
현대차투자증권	20	7%	SK증권	6	2%
우리종합금융	20	7%	삼성증권	2	1%
부국증권	18	6%	미래에셋증권	2	1%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8	6%	DB금융투자	1	0%

○ 2021년 지속가능채권 발행 주관 실적은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전체 실적의 50% 차지

<표 34> 2021년 지속가능채권 주관 실적

주관사명	채권 수	비중	주관사명	채권 수	비중
KB증권	50	21%	교보증권	6	3%
NH투자증권	42	18%	유진투자증권	5	2%
한국투자증권	32	13%	DB금융투자	5	2%
한양증권	23	10%	유안타증권	3	1%
키움증권	16	7%	KTB투자증권	3	1%
미래에셋증권	15	6%	한국산업은행	2	1%
신한금융투자	15	6%	하나금융투자	1	0%
SK증권	14	6%	하이투자증권	1	0%
삼성증권	7	3%			

2) 주관사 인수 실적

□ 2021년 SRI 채권 인수 실적을 보면, 총 31.6조원의 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됨

○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인수 실적 및 건수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됨(KB증권 131건, 약 4조원, 한국투자증권 137건, 3.7조원)

- 한국투자증권이 인수 건수가 가장 많고 인수 규모는 KB증권이 가장 큼

○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은 SRI 채권 주관 및 인수 실적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였음

○ 1조원 이상 SRI 채권을 인수한 금융사의 비중은 전체 인수실적의 72% 차지

<표 35> 2021년 SRI 채권 인수실적

인수자명	건수	인수실적 (백만원)	인수실적 비중	인수자명	건수	인수실적 (백만원)	인수실적 비중
KB증권	131	4,012,735	12.7%	이베스트투자증권	33	502,000	1.6%
한국투자증권	137	3,695,135	11.7%	신영증권	34	472,500	1.5%
NH투자증권	115	2,916,500	9.2%	메리츠증권	24	460,914	1.5%
교보증권	72	2,055,166	6.5%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2	407,171	1.3%
SK증권	62	1,712,500	5.4%	한화투자증권	24	405,000	1.3%

인수자명	건수	인수실적 (백만원)	인수실적 비중	인수자명	건수	인수실적 (백만원)	인수실적 비중
한양증권	57	1,502,500	4.8%	KTB투자증권	19	390,000	1.2%
신한금융투자	54	1,411,673	4.5%	BNK투자증권	15	370,000	1.2%
DB금융투자	44	1,142,000	3.6%	유진투자증권	19	345,000	1.1%
키움증권	48	1,118,800	3.5%	흥국증권	23	280,000	0.9%
미래에셋증권	51	1,103,500	3.5%	한국산업은행	7	217,500	0.7%
현대차투자증권	51	1,074,924	3.4%	대신증권	12	210,000	0.7%
하나금융투자	30	1,002,000	3.2%	DS투자증권	6	135,000	0.4%
부국증권	56	901,911	2.9%	케이프투자증권	6	115,000	0.4%
삼성증권	25	781,500	2.5%	KR투자증권	6	70,000	0.2%
IBK투자증권	37	721,793	2.3%	KIDB채권중개	5	45,000	0.1%
유안타증권	37	704,293	2.2%	신한은행	1	43,608	0.1%
하이투자증권	38	700,000	2.2%	카카오페이증권	3	40,000	0.1%
우리종합금융	24	548,923	1.7%	리딩투자증권	1	10,000	0.0%

* 증권신고서 미공시 SRI 채권은 제외

○ 2021년 녹색채권 인수 실적을 보면,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전체 실적의 43% 차지

<표 36> 2021년 녹색채권 인수실적

인수자명	건수	인수실적 (백만원)	인수실적 비중	인수자명	건수	인수실적 (백만원)	인수실적 비중
KB증권	60	1,850,800	17%	대신증권	8	120,000	1%
NH투자증권	60	1,704,500	15%	부국증권	9	110,000	1%
한국투자증권	44	1,260,400	11%	이베스트투자증권	7	90,000	1%
신한금융투자	25	667,000	6%	유진투자증권	6	85,000	1%
SK증권	25	632,000	6%	IBK투자증권	7	65,000	1%
키움증권	24	564,800	5%	한국산업은행	3	60,000	1%
미래에셋증권	22	520,500	5%	유안타증권	5	52,500	0%
한양증권	16	511,500	5%	카카오페이증권	3	40,000	0%
교보증권	16	457,500	4%	KTB투자증권	2	30,000	0%
DB금융투자	17	348,000	3%	흥국증권	3	30,000	0%
삼성증권	14	339,000	3%	메리츠증권	2	30,000	0%

인수자명	건수	인수실적 (백만원)	인수실적 비중	인수자명	건수	인수실적 (백만원)	인수실적 비중
하나금융투자	9	318,000	3%	우리종합금융	2	30,000	0%
하이투자증권	17	285,000	3%	케이프투자증권	2	25,000	0%
현대차투자증권	18	273,000	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	20,000	0%
한화투자증권	17	260,000	2%	KR투자증권	1	10,000	0%
BNK투자증권	7	150,000	1%	리딩투자증권	1	10,000	0%
신영증권	11	132,500	1%				

○ 2021년 사회적채권 인수 실적을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전체 실적의 13% 차지, 그 다음으로 KB증권이 10% 차지

<표 37> 2021년 사회적채권 인수실적

인수자명	건수	인수실적 (백만원)	인수실적 비중	인수자명	건수	인수실적 (백만원)	인수실적 비중
한국투자증권	47	1,131,735	13%	KTB투자증권	7	130,000	1%
KB증권	35	899,435	10%	하나금융투자	4	129,000	1%
SK증권	16	603,000	7%	한양증권	8	100,000	1%
현대차투자증권	25	594,924	7%	하이투자증권	5	75,000	1%
유안타증권	26	571,793	7%	신영증권	4	70,000	1%
교보증권	24	553,666	6%	이베스트투자증권	4	62,000	1%
IBK투자증권	24	551,793	6%	대신증권	3	60,000	1%
우리종합금융	20	469,923	5%	삼성증권	2	60,000	1%
부국증권	22	411,911	5%	유진투자증권	2	50,000	1%
NH투자증권	13	371,000	4%	신한은행	1	43,608	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8	367,171	4%	한화투자증권	2	40,000	0%
신한금융투자	17	344,673	4%	BNK투자증권	2	40,000	0%
메리츠종금증권	16	320,914	4%	케이프투자증권	1	20,000	0%
키움증권	7	235,000	3%	흥국증권	1	10,000	0%
DB금융투자	5	219,000	3%	KIDB채권중개	1	5,000	0%
미래에셋증권	9	195,000	2%				

○ 2021년 지속가능채권 전체 인수 실적의 22%를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차지

<표 38> 2021년 지속가능채권 인수실적

인수자명	건수	인수실적 (백만원)	인수실적 비중	인수자명	건수	인수실적 (백만원)	인수실적 비중
한국투자증권	46	1,303,000	11%	KTB투자증권	10	230,000	2%
KB증권	36	1,262,500	11%	유진투자증권	11	210,000	2%
교보증권	32	1,044,000	9%	현대차투자증권	8	180,000	2%
한양증권	33	891,000	8%	BNK투자증권	6	180,000	2%
NH투자증권	42	841,000	7%	한국산업은행	4	157,500	1%
DB금융투자	22	575,000	5%	DS투자증권	6	135,000	1%
하나금융투자	17	555,000	5%	메리츠종금증권	6	110,000	1%
SK증권	21	477,500	4%	한화투자증권	5	105,000	1%
신한금융투자	12	400,000	3%	IBK투자증권	6	105,000	1%
미래에셋증권	20	388,000	3%	유안타증권	6	80,000	1%
삼성증권	9	382,500	3%	케이프투자증권	3	70,000	1%
부국증권	25	380,000	3%	KR투자증권	5	60,000	1%
이베스트투자증권	22	350,000	3%	우리종합금융	2	49,000	0%
하이투자증권	16	340,000	3%	KIDB채권증개	4	40,000	0%
키움증권	17	319,000	3%	대신증권	1	30,000	0%
신영증권	19	270,000	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	20,000	0%
흥국증권	19	240,000	2%				

□ 2021년 평균 인수 수수료가 0.12%였으며, 최댓값은 0.5%, 최솟값은 0.01%로 조사됨

○ 세 SRI 채권 중 사회적채권이 0.06%로 가장 낮았으며, 녹색채권이 0.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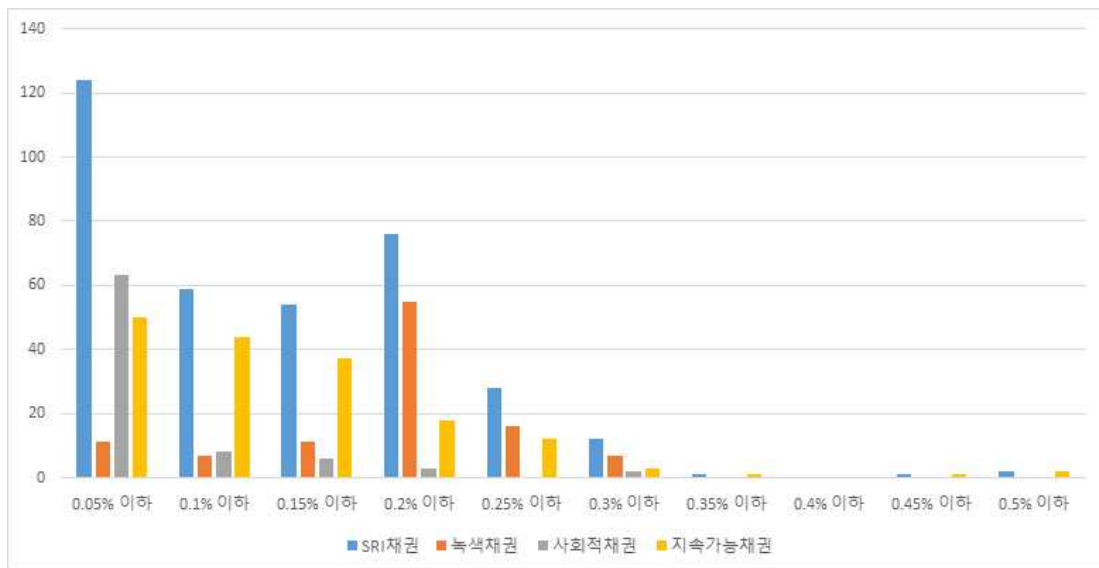
- 공공 부문에서 세 SRI 채권 중 사회적채권을 많이 발행하였으며, 공공 부문에서 발행한 사회적채권의 인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됨(일례로 신용보증기금이 2021년 총 24회 발행한 사회적채권의 인수 수수료가 0.01%였음)

<표 39> 2021년 SRI 채권 인수 수수료 기초 통계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중간값	최빈값
녹색채권	0.19%	0.3%	0.015%	0.2%	0.2%
사회적채권	0.06%	0.3%	0.01%	0.05%	0.05%
지속가능채권	0.12%	0.5%	0.01%	0.09%	0.05%
전체	0.12%	0.5%	0.01%	0.1%	0.05%

○ 인수 수수료의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0.05% 이하에서 가장 많은 채권 수를 보이고 있으나 녹색채권은 0.15~0.2% 구간에서 채권 수가 가장 많음

<그림 9> SRI 채권 인수 수수료 분포



<표 40> SRI 채권 인수 수수료 히스토그램

구간	SRI채권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0.05% 이하	124	11	63	50
0.1% 이하	59	7	8	44
0.15% 이하	54	11	6	37
0.2% 이하	76	55	3	18
0.25% 이하	28	16	0	12
0.3% 이하	12	7	2	3
0.35% 이하	1	0	0	1
0.4% 이하	0	0	0	0
0.45% 이하	1	0	0	1
0.5% 이하	2	0	0	2

Ⅲ. 개선필요사항 및 정책적 제언

□ 발행 전 구체적인 발행목적 공시 노력 부족

○ 발행 전, 관리체계 또는 외부평가보고서를 통해 채권 발행의 구체적인 목적 및 자금 사용 계획을 알 수 있어야 함

-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

- 범용 관리체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외부평가기관들은 발행 전 외부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수록하는 게 바람직

○ 범용 관리체계를 갖추고 회계법인의 확인(Assurance)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발행 전 채권의 세부 발행 목적 및 자금 사용 계획을 파악하기 힘들(전체의 21%)

○ (제언) 발행 전 외부평가의 강화를 통해 SRI 채권 발행의 투명성 강화

- 발행 전 외부평가보고서에 채권 발행 목적, 자금 사용 계획,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기술 의무화

- 확인(Assurance)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이 발행기관으로부터 채권 발행 목적, 자금 사용 계획,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등을 받아 그에 대한 외부평가 의견을 제시

□ 발행 후 보고의 강화

○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행 후 보고가 매우 중요

-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에서는 발행 후 보고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발행 후 외부평가는 ICMA 등 국제원칙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다만, 발행 후 자체 보고에 비해 외부기관의 객관적 성과 측정 및 보고가 바람직

· 발행 전 외부평가는 발행자의 채권 운영 계획을 살펴보는 것으로 발행자간 큰

차이가 없으나, 발행 후 외부평가는 계획 대비 수행 실적을 살펴보는 것으로 발행자간 차이가 발생하며 채권 운영 및 관리의 충실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자체 보고보다는 외부평가가 바람직

○ (제언) 자금 사용 완료 보고에 대한 외부평가 유도

- 자금사용 완료보고서(사회·환경영향 보고 포함)에 대한 외부평가 적극 권고 및 유도, 발행 전 계획 대비 실적 중심으로 발행 후 보고 내용 마련
-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계약시, 발행 전과 후 모두에 대한 외부평가 package 계약 유도
 - 이를 통해 발행 후 외부평가의 점진적 증가 전망
- EU 녹색채권 규정 초안에서는 자금 배분 계획의 수정 및 배분 완료시 외부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음(단, 환경영향보고는 외부평가를 의무화하지 않음)

□ SRI 채권 가이드라인의 확충

○ 세 종류의 SRI 채권 중 녹색채권만 가이드라인 존재

- 사회적채권의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마련 중, 올해 발표 예정
- 지속가능채권은 현재 ICMA의 가이드라인을 준거하고 있고, 국내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없음
 - 지속가능채권은 사회적채권과 녹색채권이 결합된 채권으로,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녹색채권가이드라인과 함께 지속가능채권에 적용 가능
 -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 마련 후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아울러 녹색채권가이드라인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 예정

- 2021.12.31.,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 사회적채권에 대한 분류체계는 아직 없음
 - 2022년 2월, EU의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는 「Final Report on Social

Taxonomy」에서 Social Taxonomy 초안 발표

○ (제언) 사회 분류체계, 사회적 영향 분석 모형 제시

-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영향 분석을 위하여 관련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SROI 등을 이용한 영향 분석 모형 제시
 -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법 사용을 위해서는 적용가능한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 사회분류체계도 녹색분류체계처럼 실질적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DNSH(Do No Significant Harm), 최소 안전기준(Minimum Safeguards)에 대한 기술적 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제시 필요
 - 실질적 기여 : SROI 등을 사용하여 정량 분석을 우선하되, 정량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정성 분석
 - DNSH : 다른 사회적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사회적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함에 있어 금리를 평균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최소 안전기준 : 국내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또는 협약 등 준수 (예, UN GP, UN Global Compact 및 ILO 협약 등 준수)

□ 원화 SRI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사회책임투자채권은 일반 회사채 대비 낮은 이자율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 이익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현재 사회책임투자채권에 대한 투자자 지원방안은 없는 실정임
- (제언) 채권 발행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감소한 투자자의 수익을 이자소득세 감면을 통해 일부 보전하는 방안 모색 가능
 - 상기 방안은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에 마련되었으나 2014년 폐지
 - 당시에는 은행이 발행한 녹색채권에 한정, 국내 기업 및 기관이 발행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

IV. 결론

□ 원화 SRI 채권시장은 지금 성장 단계

○ 2020년 6월 15일 개장하여 2년이 채 안 되나 단기간에 시장은 급성장

- 2021년 SRI 채권시장은 2019년 대비 약 4배로 성장
- 시장의 확대에 따라 투자자 및 주관 증권사들의 관심 증대

○ 발행 채권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린워싱의 잠재적 우려 또한 증가

-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 개선 유도 및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바람직

□ 2022년은 SRI 채권의 제도적 개선에 주력 필요

○ 발행 전 외부평가 강화 필요

- 외부평가 보고서에 채권 발행의 구체적인 목적 및 자금사용계획 등이 기재되도록 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SRI 채권 시장의 신뢰성 강화
- 필요시, 외부평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발적인 개선 노력 유도

○ 특히 발행 후 보고에 대한 강화 필요

- 그린워싱 위험 최소화를 위해 발행 후 보고 강화 필요
- 발행 후 보고에 대한 내용 점검 및 강화
-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 후 외부검토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 적극 유도

○ 특히 녹색채권의 경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대비 필요

- 내년부터 녹색채권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적 적용 예상

- 프로젝트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신규 추가 예정

- 이에 따른 공시 서식의 보완 등 제도적 개선 추진

○ 발행자가 보고 및 공시를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확충 필요

-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 마련 노력 필요

- 사회·환경 영향 보고 등 발행자가 보고서 애로사항이 있는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비교 가능성 개선

[첨부 1]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일부개정 2021.11.23 지침 제755호 <시행일 : 2021.11.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책임투자채권”이란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채권을 말한다.
2. “녹색채권(Green Bond)”이란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1조에 따른 채무증권형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사회적채권(Social Bond)”이란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4.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이란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5. “전용 세그먼트”란 사회적책임투자채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정보제공 매체를 말한다.
6.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등”이란 사회적책임투자채권과 관련하여 국내외 명망 있는 기관이 제정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7. “외부평가기관”이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외부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 Bonds External Reviews)」 또는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s Initiative)의 「기후채권기준(Climate Bonds Standard)」에서 정하는 요건 등에 부합하는 자로서 공인된 전문성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등록 대상) 전용 세그먼트는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채무증권을 등록 대상으로 한다.

제4조(등록 요건)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하려는 채무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등에 부합할 것
 - 가. 국제자본시장협회의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사회적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또는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 나. 국제기후채권기구의 「기후채권기준」
 - 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 Guidelines)」
 - 라. 그 밖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등

제5조(등록 신청) ①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전용 세그먼트에 채무증권을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
 2. 조달자금의 용도를 기술한 서류
 3. 채무증권 상장법인의 사회책임투자채권 관리체계에 관하여 외부평가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평가서류(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채무증권 상장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정의는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외부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 가. 검토의견(Second Party Opinion)
 - 나. 검증서류(Verification)
 - 다. 인증서류(Certification)
 - 라. 평가등급(Scoring/Rating)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자금의 용도 및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등록 결정) 거래소는 제5조의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한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등록에 따른 정보공시) ① 거래소는 제6조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녹색채권
2. 사회적채권
3. 지속가능채권

② 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채권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한다.

1. 종목명
2. 종목코드
3. 제1항에 따른 사회책임투자채권의 구분 표시
4.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5. 그 밖에 사회책임투자채권 등록과 관련하여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한 보도 자료 등 참고자료

제8조(등록 유지 요건) ① 전용 세그먼트에 사회책임투자채권을 등록한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조달자금의 집행 완료시까지 연간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이하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1.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을 처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채무증권의 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채무증권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상환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제출 후에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을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연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채무증권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상환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을 제출하는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의 제출시기별 구분, 조달자금의 사용 금액 등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11.2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조달자금의 사용 시점 및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여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1.23>

제9조(등록 취소) ① 거래소는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된 채무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증권의 전용 세그먼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21.11.23>

1.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채무증권이 상장폐지된 경우
 3. 조달자금의 용도가 제4조제2호에서 준거하고 있는 사회책임채권 원칙등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해당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제8조에 따른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용 세그먼트에 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 ③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제10조(보칙) 전용 세그먼트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674호, 2019.12.31>

이 지침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14호, 2021.1.22>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5호, 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록 신청서

한국거래소 이사장 귀하
참 조 : 채권시장부장

신청일: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이사: (인)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등록할 채무증권

- 종 목 명 :
-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종류 :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 준거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등^{주1)} :
 ICMA 녹색채권원칙, CBI 기후채권기준, 금융위 및 환경부 녹색채권가이드라인,
 ICMA 사회적채권원칙, ICMA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 기타()
- 외부평가기관 명칭^{주2)} :
- 주관회사 명칭^{주3)} :

2. 제출 서류(PDF 포맷)

- 조달자금 용도 관련 서류^{주4)}
- 외부평가기관이 발행한 외부평가서류(또는 대표자 확인서)^{주5)}
- 전용 세그먼트 등록을 희망하는 보도자료 등 추가 서류

붙임 :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록 약정서

주1) 사회책임투자채권별로 준거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가이드라인이 2개인 경우 모두 표시할 것(예. 녹색/사회적/지속가능채권을 모두 포함하는 관리체계에 대해, ICMA, 대한민국 금융위·환경부의 원칙/가이드라인 등에 모두 부합하다는 외부평가가 있는 경우 녹색채권 등록시에는 ICMA 녹색채권원칙, 대한민국 금융위·환경부의 녹색채권가이드라인에 √ 표시, 사회적채권 등록시에는 ICMA 사회적채권원칙에 √ 표시, 지속가능채권 등록시에는 ICMA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에 √ 표시)

주2) 외부평가기관이 다수인 경우 최대 2개까지 기재할 것

주3) 주관회사가 다수인 경우 최대 3개까지 기재할 것

주4) 채무증권 상장법인의 사회책임투자채권 관리체계에 같음 가능

주5) 사회책임투자채권 관리체계에 관하여 외부평가기관이 발행한 평가서류(예, 외부평가기관 검토의견, 검증서류, 인증서류 및 평가등급 등)를 의미(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채무증권 상장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로 같음 가능)

<붙임>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록 약정서

한국거래소 귀중

(채무증권 상장법인)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이하 “전용 세그먼트”라 한다)에 당사가 발행한 (등록을 희망하는 종목명)의 등록을 신청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1. 사회책임투자채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종목명을 구분 표시(한글: 녹/사/지, 영문: G/S/T) 하겠습니다.
2. 거래소에 제출한 조달자금 용도 관련서류는 당사가 발행한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자금용도를 적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3. 사회책임투자채권 관리체계에 관하여 외부평가기관이 발행하는 외부평가서류는 국제 자본시장협회(ICMA)의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외부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 Bonds External Reviews)」을 따르고 있습니다.
4. 당사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을 제출시한까지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5. 거래소는 전용 세그먼트에 당사의 이름, 로고 및 관련 서류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거래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증권의 전용 세그먼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전용 세그먼트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가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의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채무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
 - (3) 조달자금의 용도가 준거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등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 (4) 당사가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7. 당사는 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개정사항 포함)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